



경기도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현황분석 및 담론형성을 위한 심포지움

- 일 시 : 2016년 11월 21일(월) 14:00 ~ 17:00
- 장 소 : 수원문화원 소강당
- 주 최/주 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협력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용인문화원, 이천문화원,
의정부문화원, 평택문화원, 화성문화원
- 후 원 : 경기도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현황분석 및 담론형성을 위한 심포지움

<1 부> ◇ 개회

사회 :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인사말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사업 심포지움의 의의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사업추진 경과보고	생활문화사업추진경과 및 기획의도	최영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사무처장

<2 부> ◇ 주제발표

발제1.	생활문화센터를 통한 문화원 생활문화사업의 확장가능성 모색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발제2.	기존문화예술동아리의 지역네트워크 및 지역간 네트워크의 확장가능성 모색	나명철 용인문화원 과장
발제3.	지역 내 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 및 지원의 HUB기관으로써의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발제4.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과 전승방안 연구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민요를 중심으로-	김명수 화성문화원 학예연구원
발제5.	기존 강좌중심에서 탈피한 지역생활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3 부> ◇ 토론

좌장 : 전고필 문화기획자

토론

김장환 용인문화원사무국장 / 이동준 이천문화원사무국장

I.

경기도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

개요

“현재와 미래의 문화향유 추세는

기관에서 지역민 개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문화원은 대다수 그 전 방식을 고수한다.

문화시설 내에서 문화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동아리 육성지원을 통한

개개인의 문화향유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은...

-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과 이에 수반한 생활문화 지원 방식의 사업화 확대 일로 상황에서 문화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 이에 지역의 향토문화연구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담당해 왔던 문화원의 제반활동에 대한 재점검 및 가치 재확인의 기회 마련
- 경기도 31개 시, 군 생활문화동아리 현황 및 활동사항 사례 연구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각 문화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생활 문화 활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생활문화 개념 및 활동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 마련,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협력네트워크로 추진해 가고자 함.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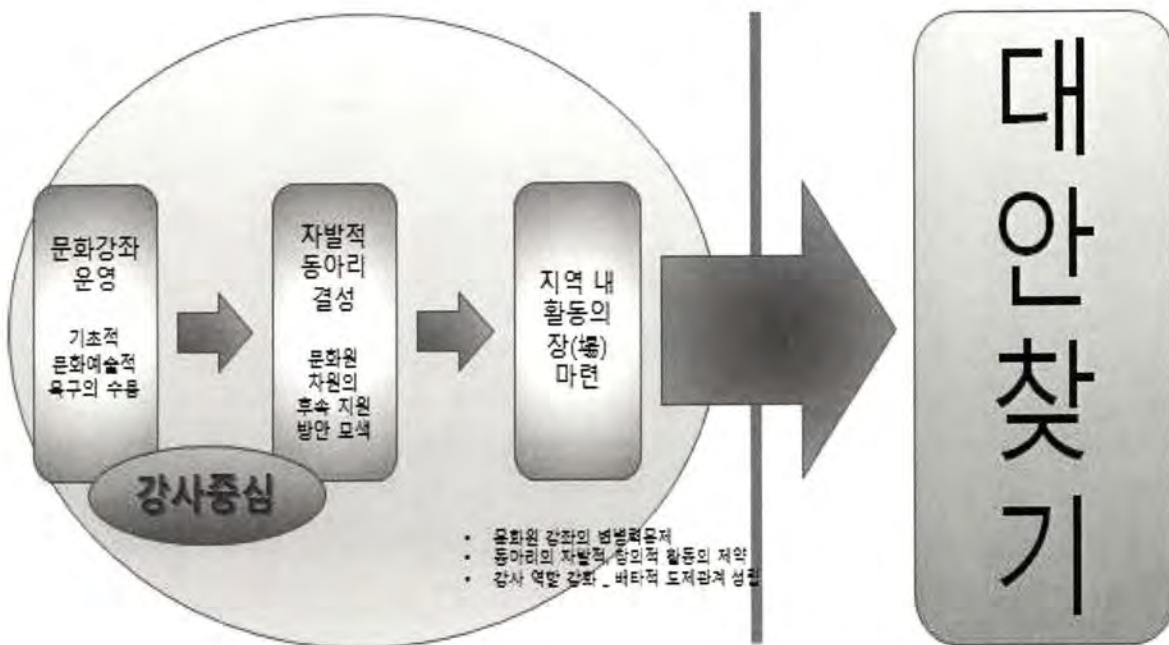
- 사 업 명 : 경기도지방문화원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9월 ~ 12월
 - 심포지움 개최일시 : 2016. 11. 21(월) 14:00/ 수원문화원 소강당
- 사업장소 : 경기도 31개 시, 군
- 사업내용 :
 1.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사업 향후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2. 경기도 31개 시, 군 지방문화원에서의 대표 생활문화사례 선정(4개권역)
 3. 경기생활문화동아리 현황분석 및 담론형성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4. 심포지움 결과 보고서 제작

- 협력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용인문화원, 이천문화원, 의정부문화원, 평택문화원, 화성문화원
-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후원 : 경기도

□ 추진방향 및 내용

- 경기도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자문 및 컨설턴트와의 협의 과정을 통한 향후 과제 및 내용 도출
- 경기생활문화사업의 현황분석 및 담론형성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 시범사례 모니터링과 결과보고서 제작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과 연계 확장가능성 모색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동아리 전수조사

_ 성격과 내용, 운영방식 등의 파악과 분석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경기도 문화원 차원의 생활문화사업의

전형 개발 및 지원 방안 확대 모색

□ 추진일정

시기	구분	비고
9월	- 4색 간담회 진행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사업과의 확장가능성 모색	
10월	- 대표문화원 선정 지원(4개권역) - 각 문화원 사례 수집	
11월	-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 심포지움> 개최 11월 21일14시 수원문화원	
12월	-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작	

□ 기대효과

- 경기도 문화원의 생활문화 활동 사례공유 및 지방문화원 활동 가치 재점검
- 향후 경기도 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 구축으로 네트워킹 극대화 단초 마련
- 각 문화원의 지역적 특성을 담아내는 생활문화 플랫폼 역할 구축
- 생활문화동아리 담론 생산의 장
- 지역문화축제의 한 지표 구축

II.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현황분석 및 담론형성을 위한

심포지움

발제1.	생활문화센터를 통한 문화원 생활문화사업의 확장가능성 모색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발제2.	기존문화예술동아리의 지역네트워크 및 지역간 네트워크의 확장가능성 모색	나명철 용인문화원 과장
발제3.	지역 내 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 및 지원의 HUB기관으로써의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발제4.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과 전승방안 연구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민요를 중심으로-	김명수 화성문화원 학예연구원
발제5.	기존 강좌중심에서 탈피한 지역생활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생활문화센터를 통한
문화원 생활문화사업의
확장가능성 모색

-동두천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박용철

동두천문화원 사무국장

1. 들어가는 말

1. 생활문화시대의 도래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을 정부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그 이후 문화융성위원회를 새로이 출범시키면서 문화분야 8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의 문화정책을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으로 전환시켰고 생활문화센터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태동하였다.

생활문화진흥사업은 중앙에서는 애초에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추진해오다가 2016년 5월에 (재)생활문화진흥원이라는 전담기관이 새로이 설립되어 지역 주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능동적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생활문화’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내에 생활문화진흥팀이 생겼고 얼마 전에는 문화원과 지역문화단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생활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내용은 “임대아파트단지, 서민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주민이 예술을 통한 나와 이웃을 재발견하고 행복 넘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론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생활문화사업과 차이가 나지만 “생활문화공동체”라는 사업명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생활문화사업의 한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문화이모작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지원 ‘시시콜콜’이라는 사업 등도 다 생활문화관련 사업들로 볼 수 있다.

바야흐로 문화정책의 생활문화시대가 도래하였다.

2. 생활문화란?

그러면 생활문화란 무엇일까? 한 번은 짚어갈 만한 일이다.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적 활동을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해오면서 같이 누려온 것이다. 그 이루어지는 행태는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수 천 수 만 가지로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져 왔고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지금까지 그 활동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하지 않았을 뿐이지 생활문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와 같이 있었고 또 미래에도 항상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문화진흥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자니 생활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해 졌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라는 어떠한 것인지 명시해 놓았는데 동법 제2조 2항에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사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 정의 해놨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생활문화의 범위와 장르는 어떠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생활문화의 내용과 이루어지는 행태는 매우 다양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간한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조광호)” 연구서에 생활문화범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생활문화의 장르

이 연구서에 의하면 생활문화를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 등 4가지 장르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예술 :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예술장르에 해당하는 계열의 문화활동 분야로서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국악/사진/건축/어문/만화 등을 들 수 있다.

- 생활기술 : 예술에 속하지 않는 장르로서 일상생활과 함께 동시에 자기 개발, 여가, 취미 등의 목적으로 향유하는 사회적 문화활동 분야로서
 - 생활과 밀접한 기술자격 취득 가능학습 및 교육활동
 - 개인의 자기개발적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즐기는 취미 및 오락활동 등을 들 수 있다.
- 생활교류 :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교류 및 매개와 사회적 공헌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사회활동 분야로서
 - 사회적 문화활동(교류/매개/공헌)
 - 전통교육 및 보존(역사/전통 교육, 문화재지킴이 등)
- 생활기타 :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활동분야

나. 생활문화의 활동범위

동 연구서에서는 생활문화의 활동방식 또는 참여형태를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창작 : 생활문화주체 스스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형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 참여 :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로서 참여하여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을 행하는 활동형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 교육 :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로서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형태로 비교적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 향수 : 문화적인 무엇인가로부터 관람, 청취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수동적 활동형태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II. 생활문화사업의 내용

1. 생활문화진흥원

생활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사업의 주무 기관이다. 생활문화센터를 설치

하는 사업 외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에 의해 살펴본다.

가.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의 본격 운영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우수 모델의 전략적 육성
성과 생활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자생적 지역문화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다음
의 사업을 수행한다.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기반 구축 컨설팅 운영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기반 구축 운영장 역량 강화 워크숍
- 생활문화센터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나.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비 생활문화코디
네이터 양성을 통한 지역 밀착형 인재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지원사업

‘문화가 있는 날’ 지역주민과 생활문화동호회가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속 문화체감
도를 높이고,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다음의 세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 권역별 생활문화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 전국생활문화제 개최

2.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진흥팀에서 추진하는 생활문화사업 2가지만 소개
한다.

가.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이 사업은 문화원, 문화의집,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활동중인 예술가들과 생활문화예술 관련 인적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교육활동을 진흥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일상의 문화를 발견하고 나누고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예술가와 단체의 역량을 활용해 생활문화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대상 생활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문화원을 포함 14개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사업

이 사업은 문화나눔활동을 하고자 하는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유관기관 및 복지시설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내 소외계층 유관기관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III. 생활문화센터의 탄생

문화원과 생활문화사업과는 전혀 낯설지가 않다. 명칭만 약간 유사할 뿐이지 사실 그동안 문화원이 수행해왔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과 소규모 문화 행사등이 생활문화사업의 한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생활문화센터가 2014년 이후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국민소득증대와 주 40시간 근무제 등의 확대로 과거 노동중심사회에서 여가중심사회로 국민들의 문화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즐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정책적인 배경하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문화감수성과 문화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장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역사회로 연결하고 지역민 상호간 나누며 소통해나가며 생활문화를 즐기며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기능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간한 자료에 생활문화센터의 핵심기능 두 가지를 설명해 놓았는데

첫째,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의 거점역할을 하는 곳이다.

- 지역주민의 삶을 문화적으로 가꾸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의 문화를 재구성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토대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생활문화형과 확산의 거점공간
 - 지역주민의 자발적,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을 인큐베이팅하고 성장 지원
- 둘째,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의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이 생활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 민주주의 실현 공간
- 지역주민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거점공간
- 지역주민, 주민커뮤니티, 동호회의 화합, 연습, 발표, 교류공간 제공

2. 생활문화센터의 비전과 미션

생활문화센터는 공통의 비전과 미션을 갖고 있다. 다만 각 지역의 생활문화센터는 공통비전과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비전과 미션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비전은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가 있는 삶 실현”이다.

그리고 세 가지의 미션이 있다.

첫째,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공간이다.

지역주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문화공간이자, 지역주민들에게 쉬운 접근성과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주는 장소제공이다.

둘째, 새로운 자기표현과 창조의 공간이다.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의 학습, 체험, 생산의 공간이자, 삶의 가치와

재미를 발견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일상의 문화, 지역의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곳이다.

셋째, 관계형성의 장이다.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간 관계를 맺고 다양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문화가 형성되고 축적되는 장이다.

자료에 의하면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 35개의 시설이 설치된 이후 현재 4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설치준비 중에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2017년까지 100개소의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명칭은 “00 생활문화센터”로 통일되어 있으며 설치장소도 문화원, 문화의 집,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대학교, 마을회관 등 입지형태도 다양하며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의 수원과 동두천을 포함 전국적으로 6개 문화원정도이다. 의외로 문화원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음을 알 수 있다.

IV. 동두천생활문화센터소개

1. 개소 경위

동두천생활문화센터는 좀 특이하게 개소하였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동두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2014년 11월 새로이 설치, 운영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설의 일부(약70평)를 할애받아 동두천시에서 국비 2천4백만원 시비 5천6백만원 도합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시설물로서 그 운영을 동두천시에서 문화원에 위탁하여 2015년 2월 10일 동두천 생활문화센터로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시설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고 운영은 시에서 위탁을 받은 동두천문화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로 문을 연지 1년 9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비록 짧은 연륜이지만 나름대로 이 지역의 생활문화사업의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2. 시설소개

동두천생활문화센터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아파트 등이 밀접한 곳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
- 지역주민의 일상속 문화시설 이용 및 향유기회 제공
- 생활문화동호회, 미술동호회 소모임 등 작업 및 모임 활동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커뮤니티공간, 문화나눔방, 문화소통방, 물품보관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별 면적 및 주요기능은 표1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 커뮤니티 공간 및 북카페

- 안내직원(자원봉사자) 상주, 이용 안내 및 청소등 유지관리
- 지역주민들의 아늑한 쉼터 및 주민상호간 소통공간
(교양서적 주기적 구입 및 교체)

- 약간의 음료(커피, 차)제공

● 문화나눔방(공방)

- 문화예술 동아리 작업공간 및 전시장 활용
- 서예, 문인화 등 문화예술동아리 활동공간

● 문화소통방

- 문화예술관련 문화강좌 운영
- 문화예술동아리 및 관련 단체 회합 및 소통공간 제공

표 1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시설현황

공 간 명	면 적(㎡)	주요 기능
커뮤니티 공간	100	북카페, 주민교류 쉼터, 전시공간
문화소통방	60	동아리 회의, 교육, 교류 공간
문화나눔방	50	동아리 작품활동 공간
물품보관실	20	물품 보관

3. 이용인원

개소이후 월별이용 인원은 <표2>와 같으며 현황에 의하면 비교적 하절기에 이용인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초창기에는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인원이 적었으나 이곳에서의 생활문화동아리의 활동과 프로그램운영, 생활문화사업 진행 등으로 점차적으로 이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2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월별 이용현황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5	-	-	253	408	453	459	630	440	421	361	390	307	4,122
2016	339	277	635	565	533	749	604	635	418	451	-	-	5,206

4. 운용프로그램

동두천생활문화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표3>과 같은데 문인화, 서예, 노끈공예, 가요교실은 기존의 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이고 생활사진, 성인문해, 화요시낭송은 신설 프로그램이다. 그 외 수시로 문화소통방을 이용한 각종 사회단체와 생활문화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표 3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운용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시기	이용인원	비고
정기	문인화	주 2회	12명	기존
	서예	주 2회	15명	기존
	성인문해	주 3회	15명	신설
	생활사진	주 1회	12명	신설
	노끈공예	주 1회	17명	기존
	가요교실	주 1회	35명	기존
	화요시낭송	주 1회	8명	신설
비정기	문화원 및 산하단체 회의장소 활용,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동두천문인협회 등 5개 생활문화동아리 회의장소로 활용			

V. 동두천생활문화사업 추진내용

1. 생활문화동호회 구성 및 운영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는 2015년 7월 9일 동두천생활문화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구성인원은 동두천시관내 문화예술 유관기관, 단체 및 생활문화동아리 대표자 또는 사무국장(또는 총무)등 17명으로 위원장에 문화원장, 간사는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하였다.

생활문화동호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여 활동역할은

- 동두천생활문화센터 활동 프로그램기획 및 개발, 진행
- 생활문화동아리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소통공간
- 생활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
- 생활문화센터 운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보완
- 생활문화동아리 상호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모색
-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2. 행복누리, 행복나눔 동두천생활문화센터(2015년 사업명칭)

이 사업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15년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속 문화시설 향유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민에게 공존과 소통의 생활문화활동 공간제공, 생활문화예술을 매개로 행복나누며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술한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형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존 운영되고 있던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사진교실, 한지(규방)공예, 시낭송 및 문예창작, 하모니카합주, 한국화, 캘리그라피, 서예 등 7개 생활문화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운영하고, 성과보고회 형식으로 동 사업에 참여한 동두천생활문화동호인과 시

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누리 행복나눔 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 한마당축제를 2015년 9월 16일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어울림 한마당축제의 행사내용은

○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작품 전시회(5종)

: 한지공예, 한국화, 서예, 캘리그래피, 사진

○ 시민대상 생활문화예술 체험(3종)

: 한국화, 한지공예, 즉석 사진찍아주기

○ 신바람나는 문화예술공연 한마당(4종)

: 색소폰, 하모니카합주, 우크렐라, 송서울창 등 이었으며

특별초청공연으로 국악협회 동두천시 지부 회원들의 흥겨운 우리가락 한마당이 펼쳐졌다.

3. 행복누리 행복나눔 어울림 한마당(2016년 사업명칭)

이 사업 역시 예술경영지원센터(사업진행중 생활문화진흥원으로 업무이관)의 2016년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 생활문화동아리 문화예술활동역량 제고를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 일상속 자발적 문화향유 체감 확산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은

- 행복누리, 행복나눔 생활문화동호회 조직확대 및 운영활성화
-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행복누리, 행복나눔 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 한마당축제였다.

행복누리 행복나눔 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 한마당축제는 6월 문화가 있는 날에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식전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여는 시, 청춘하모 등 7개 생활문화동호회 공연과 경기명산담묵회 등 5개 생활문화동호회원들

의 작품 전시 및 체험활동으로 많은 시민들과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VI. 지역의 생활문화여건

1. 지역여건

한수이북 접경지역 인구 10만의 소도시로 오랫동안 미군의 주둔으로 기지촌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개발규제로 지역이 낙후화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 문화예술부문 예산지원이 열악한 상태임

2. 생활문화동아리 현황 및 활동실태

동두천시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는 <표 4>의 현황과 같이 28개로 파악되었는데 그 활동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생활문화동아리가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임주기는 거의 대다수 동아리가 주1회 정도 모여 관련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구성인원은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35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며 활동근거지로는 대다수 동아리가 문화원과 아름다운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동아리는 특정 문화시설에 속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 4 동두천시 생활문화동아리 현황

No.	동아리명	회원수	모임주기	창립일	활동지	분야
1	Do Dream 클래식기타 앙상블	15명	주1회	2012. 1	아센터	음악
2	아름다운 스트링 챔버	13명	주1~2회	2013. 3	아센터	음악
3	빛사진동호회	8명	월2회	2013. 2.	아센터	사진
4	한지봉 국악 '가야금' 동아리	14명	월1회	2009. 12.	아센터	국악
5	놀이공동체 도담도담	8명	월2회	2014. 3.	자생적	음악
6	가비사랑	15명	월1회	2014. 12.	문화원	기타
7	행복(걸산마을 사물놀이)	16명	월1회	2016. 3	걸산마을	사물
8	동두천시 봉산탈춤회	15명	주1회	1997. 9.	자생적	탈춤
9	늘품	10명	주1회	2015. 4.	자생적	기타
10	송내동 알음알이 난타동아리	9명	주2회	2011. 5.	송내동	난타
11	공공미술 마을꾸Ming	10명	주1회	2015. 4.	자생적	미술
12	예술야학-토 플레이	12명	주1회	2015. 12.	자생적	미술
13	경기 명산 담목회	15명	주2회	2007.	문화원	문인
14	두드림실버합창단	34명	주1회	2011. 11.	노인복지관	음악
15	음사모(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18명	주1회	2011. 6.	노인복지관	음악
16	서예동아리	25명	주1회	2010. 12.	노인복지관	서예
17	청춘하모	10명	주1회	2014. 2.	문화원	음악
18	동두천두드림장애인미술동호회	5명	주1회	2012. 4	장애인학교	미술
19	행복한 시 읽기	7명	주1회	2016. 4	문화원	문학
20	실버색소폰 악극단	15명	주1회	2015. 3	문화원	음악
21	동두천 가요회	35명	주1회	2010. 3	문화원	음악
22	동은서도회	15명	주2회	2002. 3	문화원	서예
23	이담가야금회	10명	주1회	2016. 3	문화원	국악
24	한지사랑회	15명	주1회	2015. 5	문화원	공예
25	소향중창단	15명	주1회	2012. 5	소요동	음악
26	소요문학회	25명	주1회	1995. 3	자생적	문학
27	노끈공예반	20명	주1회	2009. 7	문화원	공예
28	어화줄을시구 이담풍물단	23명	주1회	2016. 4	문화원	사물
	계	432				

VII. 생활문화센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사업의 확장방안

동두천문화원은 공모형식으로 생활문화사업을 2년차에 걸쳐 진행했다. 지역의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실태를 중심으

로 생활문화사업을 확장내지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기술한다.

1. 생활문화동호인 네트워크 강화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가. 네트워크 강화

동두천생활문화센터에는 생활문화동호회가 구성되어 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동호회 상호간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등 인적네트워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활동이 미미하다.

현재 파악되어 있는 28개 생활문화동아리중 생활문화동호회에 미가입한 17개 동호회를 생활문화동호회에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관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들을 발굴해 나감으로 생활문화동호회의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생활문화동호인들의 역량강화와 생활문화사업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활문화센터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전과 미션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은 한계가 있다. 대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상의 네트워킹이다. 가칭 “동두천생활문화카페”를 개설하여 동두천시 관내 문화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토록 하여

개개 생활문화동호인들의 행사 계획 등을 알리고 활동상황을 공유하며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생활문화동호인 상호간 동질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나만의 센터 이용 이야기 발굴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일반인들보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

람들이다. 나름대로 센터를 이용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활동상황들은 개개인 별 천차만별이고 무궁무진하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속 생활문화센터 이용 이야기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물론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문화스토리 공모전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하여 생활문화동호인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증폭시켜 나갈 수 있으며 모여진 이야기들을 책으로 발간해 지역민들과 함께 정겨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3. 주민밀착형 생활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생활문화사업의 외연이 확장되려면 뜻을 같이 하는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자유롭게 만나 활동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 판이 주민밀착형 생활문화프로그램이다. 정례적으로 동호인들이 그들의 재능을 연마하고 동호인 상호간 소통하고 교류가 활발해 지면 생활문화사업의 외형은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주민밀착형 생활문화프로그램인가? 그 해답은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참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민밀착형 생활문화프로그램일 것이다. 이를 찾아 내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지만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면 그리 어려운일은 아닐 것이다.

4. 행복누리, 행복나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연례화

문화원에서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발표회 형식으로 사업 마무리 시점에 참여한 생활문화동호인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누리, 행복나눔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그 성과가 좋아 연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동호회 상호간 유대감과 동질감이 형성되며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로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 교류확산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생활문화예술활동 매개활동이 촉진될 것이다.

5. 제도적인 뒷받침 완비

생활문화사업이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추진되고 있듯이 지역에서도 생활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이미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4개 광역시도와 부천시와 부산 사하구 등 2개 기초단체 등에서는 이미 생활문화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생활문화사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240여개 광역 기초단체 수에 비해 6개 자치단체에서만 관련조례를 제정하였다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생활문화사업이 자치단체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2015년부터 정부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시스템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자체가 주민스스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활동한다 하지만 생활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 개최 등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은 필수적인 사항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제정은 시급하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로 하여 각 시군에 적합한 생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이나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명시
-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계획하고 수립해야 하는 사항 명시
- 문화예술단체/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기준 명시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지원 명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동두천문화원에서도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를 중심으로 가칭 “동두천시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VIII. 마치며

“생활문화사업”은 요 근래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트랜드이다. 그러나 굳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일상적 자발적으로 모여 배우고 그 재능을 기부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펼쳐 왔다. 그 활동 근거지는 문화원이었다.

문화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빠짐 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허브기관이다. 물론 그 활동영역과 활동수준은 지역실정에 따라 문화원마다 다르다. 그러나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고유의 기능은 똑 같다. 지역문화라는 커다란 영역안에 생활문화가 있다. 즉 문화원과 생활문화는 같은 길을 걸어 왔다.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문화원에서 해왔다.

생활문화진흥원이나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문화진흥사업은 명칭과 형식, 내용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사업방향은 같다. 문화원이 지금 까지 해온 지역문화진흥사업도 그 맥락은 같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부록 1. 행복누리, 행복나눔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운영규정

행복누리, 행복나눔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행복누리, 행복나눔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동두천생활문화센터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동두천생활문화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두천생활문화센터 활동 프로그램기획 및 개발, 진행
2. 생활문화동아리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소통공간
3. 생활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
4. 생활문화센터 운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보완
5. 생활문화동아리 상호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모색
6.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개발 지원

제2장 구 성

제5조(구성)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 운영규정에 동의하는 20명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시청관계부서, 생활문화센터운영단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대표(또는 사무국장)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의 의무)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규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한다.
2. 본회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실추시키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8조 운영위원회회의는 총회 월례회, 간담회로 구분한다

1. 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말 개최한다.
2. 월례회 및 간담회는 매월 개최한다.
3. 위 회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개최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전체 재적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규정변경등에 관한 의결은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전까지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간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운영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간사의 임기는 운영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5장 재 정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조달한다.

1. 본회의 재정은 동두천시와 동두천문화원이 지원하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본회 사업에 관심있는 개인 및 사회단체로부터 찬조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 본 규정은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2015년 7월 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활동사항



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쉼터)



문화소통방
(생활문화동아리 활동공간)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창립총회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2016년 4월 월례회



생활문화동호회 5월 캠페인



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한마당축제

기존문화예술동아리의
지역네트워크 및
지역간 네트워크의
확장가능성 모색

나명철
용인문화원 과장

1. 생활문화 활성화 배경

1-1. 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근대에 이르기 까지 예술은 소수의 교육받은 몇몇 사람들이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의 표지였고 독점적 활동이었다. 개인보다는 사회적 위계에 따른 삶의 질서가 중요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신성과 규범의 하부구조였고, 예술은 이런 질서 속에서 존재했다. 이런 흐름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권리가 적극적으로 분출된 근대사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다. 이때부터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소수의 예술가가 독점했던 예술체계는 점차 변모하기 시작한다.

근대사회의 일상생활은 각 개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조직, 합리적 의사 결정과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했다. 각 요소들은 제도적으로 분리된 체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고, 동질적인 의미를 구현하면서 공동체(결사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가 되었다.

근대 이후의 예술 동호회는 수평적 결사체의 조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감성을 표현함으로써, 예술과 정치, 예술과 경제, 예술과 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현상을 <예술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분석하고, 각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예술의 관점을 <목적 · 주체 · 예술 · 성격>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예술의 패러다임 변화¹⁾

	예술지상주의 관점	도구주의적 관점	생활예술의 관점 (문화공동체적 예술)
목적	예술 그 자체	비예술적 목적(경제 발전, 정치적 선전)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
주체	전문 창작가, 비평가, 애호가	경영자, 정치가, 기획자	시민-예술가, 예술가-시민
예술	송배의 대상	기능적 수단	창의적인 과정
성격	문화자원-차별논리	동원자원	사회자본-연계적

1) 심보선, 「새로운 예술과 문화공동체」, 『2008 문화정책 대화모임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2008. 재구성

이렇듯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기본권의 성장과 함께 탄생한 생활 예술은 시민 공동체구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상생활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이라는 장치에 예술이라는 프리즘을 더하여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 생활예술은 그 범위와 해석에 대해 상당히 큰 범주를 갖게 된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생활예술은 시민(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²⁾
- 생활예술은 시민(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토론하고, 창조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 생활예술은 시민(주민)이 일상생활의 사적영역, 즉 일,가족, 사고 등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표현하는 활동³⁾

1-2. 지역문화진흥법과 생활문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1월 제정되었다. 그 중 생활문화 활성화 부분은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1월 28일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2012』 생활예술은 전문예술의 창작 기법을 그대로 모방할 수도 있고, 대중문화를 차용할 수도 있고,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3) 『심보선, 강운주, 2010』 예술 동호회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어떤 동호회는 사회적 사고에 치중하고 어떤 동호회는 예술적인 기예의 습득에 치중하며 어떤 동호회는 매우 폐쇄적이며 어떤 동호회는 매우 개방적이다

이 법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를 설치(2014년 기준 약 31개)하여 지역별 동호회의 거점 공간을 설치하여 동호회원의 모임장소, 연습 공간, 발표 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문화 동호회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예술을 매개로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이 ‘삶의 질’과 관련 된다는 인식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회요인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문화향유 정책의 주제가 공급자 지원(시설건립, 우수 예술가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를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주민)의 자발성, 민주성, 일상성, 시민성의 확대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주요한 원동력이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써 향후 지원체계의 내실 있는 발전과 지역별 특색을 갖춘 발전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주요 비교⁴⁾

구 분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 정 일	2014. 1. 28	1972. 8. 14
정책대상	시민전체	예술인, 문화향유층
강조분야	문화자치(민간주도)	예술진흥
문화시설	복합화(생활문화센터), 내실화	문화기반시설(군·구별 건립)
주요장르	생활문화, 문화유산	순수예술
문화인력	지역문화전문인력 중심 (지역문화 발굴·기획·운영인력)	예술인 중심
주민참여	문화창조행위 참여	관람객
활용방향	문화브랜드강조, 콘텐츠화	예술축제

2. 지자체별 생활문화 활성화 현황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개별 지자체에서는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대두되었다. 인천의 경우 문화수용자운동⁵⁾에서 출발한 인천시

4)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안)

5) 『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과 문화공론장의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박승현, 2012.12』 지역 내 양질의 문화예술

민문화예술센터(문화바람)가 있고, 성남은 심층적·체계적인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의 대표사례가 되었으며, 부천은 생활문화와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로 「생활문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추진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또한 경기도(경기문화재단)는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의 생활예술 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를 범주화 하였고(예술교육형, 자발적 예술형, 커뮤니티 예술형, 마을만들기형) 이를 기반으로 경기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의 심도 있는 발전을 도모하였다.

2-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처음(2014년 5월)으로 ‘인천시 생활문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 7월 29일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동호회의 발표회 경비의 삭감과 면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생활문화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등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분야별 추진체계를 설정하였다⁶⁾.

□ 지역문화진흥계획 분야별 추진과제⁷⁾

인천만의 문화가치 창조	① 인천만의 지역가치 발굴 1. 인천만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2. 인천의 ‘섬’가치 재창조 3. 인천 스토리텔링
	② 문화유산 발굴·보존·활용 1. 강화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2.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지역전통문화 복원
	③ 문화브랜드 창조 1. 원도심 문화창조 사업 2. 축제·문화 브랜드화 3. 유네스코 세계책의 수도 인천

을 유치·관람하자는 형태의 운동.

6) 『조현성, 문화관광연구원 2014.』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지원과 구축 방안 발췌.

7) 『인천시, 2015.11』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안)

시민 생활 속 문화확산	①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1. 문화시설 조성 및 지원 2. 생활문화공간조성 및 지원 3.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 ②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1.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 및 지원 2. 생활문화 발굴 및 지원 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③ 문화향유권 증진 1. 맞춤형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2. 취약지, 소외계층 지원 3. 시민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지원
지역문화 역량강화	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2. 지역문화 전문인력 현업 종사 지원 3. 청년문화인력 지원체계 구축 ② 지역문화주체 역량강화 1. 문화재단 역량강화 및 지방문화원 활성화 2. 지역문화단체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3.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③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1. 조례 제정 및 계획 수립 2. 문화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3. 문화재원 다각화 및 확충

특히, 시민생활속 문화확산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보급으로 문화향유권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과제로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및 지원, 민간시설의 공공공간화 추진,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 등의 기반시설 지원과 생활문화 공동체형성 및 활동 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지원체계 다변화를 구성 및 시행하고 있다.

2-2. 경기문화재단

생활예술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예술성과 시민성을 추구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경기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⁸⁾.

□ 2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자료 요약

생활속 문화향유 확대	① 문화가 있는 삶 일상화 1. 생활 속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강화 2.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전개 3. 동네형 문화공동체 조성
생활속 문화향유 확대	② 지문화예술 생산창작 거점화 1. 문화+꿈+열정의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조성 2.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 전략 거점 창출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위와 같은 경기도의 기본업무계획을 통해서 경기문화재단은 “경기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2015.1)”를 통해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조사를 시행하였다. 여기서 드러난 생활예술공동체의 범주는 <생활예술교육형, 자발적 예술형, 커뮤니티예술형 및 마을만들기형>으로 나누었고, 이어 전문 인력 및 조직, 생활예술공동체를 위한 공간조성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그리고 또한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원에 있어 자발성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열린 결정권 원칙-경연 지양 원칙-수평적 소통구조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행사 횟수나 참가인원 등의

8) 『강운주, 경희사이버대학교, 2015』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발췌

지표상의 원칙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형성 능력, 의결과정의 민주성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 생활문화의 태생적 원인에 초점을 맞춘 활성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⁹⁾.

2-3.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사업은 생활예술 정책에 대한 대표적 케이스로 분류된다. 사랑방문화클럽 지원정책의 원칙은 우수예술활동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 거점과 상호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6년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1,103개의 문화클럽을 확인하였다¹⁰⁾. 이에 성남문화재단은 지역과 클럽형성계기 변수를 교차분석하여 성남시 문화클럽의 성격을 분석하였고,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특징을 정리하였다.

□ 군집별 성남 클럽의 형태¹¹⁾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특징	정보교류 중심	친목활동 중심	지역사회 기여도 높음	발표 중심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낮음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낮음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높음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높음
	직장인, 여성, 주부 비중 높음	20대 비중이 높음	2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활동	30-40대 비중 높음
	수직,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낮음	수평적 보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수직,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전문가를 통한 기능 습득, 관심사에 집중	정보교류에 관심 집중	오래되고, 전문가들의 모임 많음	군집3보다 사회참여 적음
클럽의 형태	배움클럽	친목클럽	공헌클럽	숙련클럽

9) 『강운주, 경희사이버대학교, 2015』 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발췌

10) 시민문화예술클럽의 욕구와 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2006년 8월에 실시.(전수환·박승현, 2006: 10)

11) 시민문화예술클럽의 욕구와 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 전수환·박승현, 2006: 16

이중 특히 「공헌클럽」은 자신이 좋아 하는 취미활동을 시작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해서, 배움과 만남 그리고 숙련을 거치면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들의 재능을 발표하고 봉사하면서 인정받는 과정에서 자아의 성취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에 기여되는 형태로 ‘문화공동체적 예술’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즉, 생활문화예술의 정의에 가장 근접해 있는 형태로, 이후 성남문화재단은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창조도시’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문화정책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

□ 성남문화재단 2단계 5개년 방향. 발체

단계	기간	과제	내용
1단계 3개년	2006-2008	기초 다지기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2단계 5개년	2009-2013	구조세우기	문화공동체 시스템 만들기
3단계 7개년	2014-2020	외관꾸미기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정립

2-4.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

부천시는 2014년 생활문화와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로서 「생활문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체계로 거버넌스 연계를 통해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생활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문화향유, 문화예술교육, 예술 창작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취미 활동을 넘어서는 생활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개발하였다.

12) 상동

□ 부천시 생활문화 3개년 추진계획, 2014. 발췌

생활문화 기초 토대 구축	2013년 ○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컨설팅 ○ 생활예술 페스티벌 개최 2014년 ○ 부천 생활문화예술복지서비스 체계 현실화를 위한 컨설팅 ○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정 공포 ○ 생활문화활성화 T/F 운영 ○ 생활문화 진흥 협의회 구성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협의체 구성(6개) 문화예술교육 및 워크숍(공무원 및 시민)
생활문화 활성화	2015년 ○ 생활문화 3개년 기본계획 수립 ○ 생활문화협의회 소위원회 구성 ○ 정책토론회 및 컨퍼런스 개최 ○ 문화시민헌장 선포식 ○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 생활문화시설 운영 ○ 프로그램 강사지원 ○ 생활문화 포럼 운영 ○ 생활문화관련기관 네트워크 가동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협의체 구성 확대
생활문화 확산 및 정착	2016년 ○ 생활문화진흥 및 교육관련 조례 및 규칙 마련 ○ 제1회 전국생활문화 예술 페스티벌 개최 ○ 아트밸리 시민학교 개설

□ 부천시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 내용 요약¹³⁾

구분	내용	특성
목적 및 준비과정	- 생활 속 문화예술 지원시스템 구축 -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활동으로 생동감 있는 문화특별시 구현	- 2013년 부천시청(문화예술진흥팀)에 음악, 댄스 동아리의 가입신청을 받고, 장르별 동아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간운영 규칙마련 페스티벌을 개최
네트워크 현황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248개, 회원 7,894명으로 추정 - 4개 장르 중심 네트워크 결성 (기타, 색소폰, 밴드, 합창) - 4개 장르의 가입 동호회는 93개, 동호회원은 1,339명	- 가입조건: 부천시를 기반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취미 모임 - 음악동호회가 77개(31.1%)로 가장 많음
운영 및 지원 주체	- 부천시청 문화 예술가와 4개 장르 (기타, 색소폰, 밴드, 합창) 운영위원회의 역할분담 - 운영위원회: 연맹방식 장르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괄 운영팀: 거점 공간 시설운영 연간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운영 영역별 동아리 사업 연계 - 운영위원회: 거점 공간 운영규칙 마련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지원 기준과 예산	- 동호회 지원예산 약 4억 6천만 원 (2013기준)	- 경기도 내 문화예술과 예산에서 동호회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다른 시 지역보다 높음
사업 및 지원내역	- 공간 및 장비 지원 - 강사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사회 기여활동지원	- 공간재생을 통한 동호회연습거점 공간 제공(상동 연습장, 오정 연습장, 소사본동 라온) -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장비 지원사업 추진 - 전문예술인과 연계하여 동아리 교육지원 -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 개최

3. 용인통기타네트워크프로젝트(2015년)

3-1. 추진배경

- 2010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세시봉 열풍이 불면서 이로 인해 70년대

13) 『조현성, 문화관광연구원 2014.』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지원과 구축 방안 발췌.

통기타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공공문화기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사설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통기타 강좌가 많이 생겨남.

-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강생들은 자생적으로 통기타 동호회를 결성하고, 자체적으로 기능을 연마하면서 지역 내에서 문화봉사활동과 자체발표회 등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용인 지역에도 20여개의 통기타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각 종 기관 및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기타 강좌를 통해 앞으로도 수십여 개의 통기타 동호회가 결성될 가능성 잠재

- 따라서 이번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용인 지역 통기타 동호회들이 교류하고, 통기타도아리축제를 기획·실행하여 '용인통기타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

3-2. 추진방향

- 용인 지역에 있는 통기타 동호회, 문화강좌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동호회간 교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주민 생활권인 3개구(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동·서부 권역으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교류하면서 권역별 통기타도아리축제를 진행하고, 이를 발판으로 용인 지역 전체로 교류 확대

- 단순한 교류와 1회적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통기타 동호회 간 교류를 바탕으로 장르 축제를 기획·실행한 후 생활문화동호회 장르 네트워크(용인통기타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프로세스를 구성

3-3. 사업목적

- 용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통기타 동호회 간 교류를 추진하여 개별 동호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단위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동호회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사

- 업을 추진하여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의 자생적인 사업 기획 역량 배양
-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인 생활문화동호회의 교류, 공동 프로젝트 진행,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과제(원주민과 이주민의 정서적 융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 마련
 - 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인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전국적인 지역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

3-4. 추진 내용

단위사업	일 시	장 소	세부내용
용인통기타동아리 현황조사	6.~7.	용인시전역	-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기타반 방문 - 동아리 대표 및 강사 면담
용인통기타동아리 대표자회의	7.10(금)	죽전1동 주민센터	- 용인통기타축제 사업 공운 - 추진위원(공동대표) 선출
축제추진위원회 (공동대표회의)	7.29(수) 8.24(월)	용인문화원 회의실	- 용인통기타축제(8월,9월) 준비, 점검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출범 일정 확정
용인통기타축제 I (기흥구)	7.18(토) 18:30	동백 호수공원	- 참가규모 : 총 600여명 · 행사참가자 : 12팀, 80명 · 관람객 : 500여명
용인통기타축제 II (처인구)	8.15(토) 16:00	용인시청 야외공연장	- 참가규모 : 총 200여명 · 행사 참가자 : 8팀, 40여명 · 관람객 : 200여명
용인통기타축제 III (수지구)	8.22(토) 19:00	죽전1동 탄천	- 참가규모 : 총 5,000여명 · 행사참가자 : 12팀, 100명 · 관람객 : 5,000여명
용인통기타축제 IV (용인전체)	9.19(토) 18:30	동백 호수공원	- 참가규모 : 총 600여명 · 행사참가자 : 9팀, 40명
용인통기타 네트워크 창립 총회	9.30(수) 11:00	용인문화원 회의실	- 참가규모 : 16개동아리 20명 참가 - 회의결과 :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회칙 심의 · 공동대표선출

3-5. 세부 추진 내용

1) 용인통기타동아리 현황조사

- 용인 지역 통기타 동아리 및 통기타강좌 조사(6월~7월)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동호회, 자생동아리 강사 및 대표자 면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통기타반 개설 현황(총24개 읍면동 43개 교실)

	처인구	교실 수	기흥구	교실 수	읍면동	교실 수
1	포곡읍	2개 교실	신갈동	1개 교실	풍덕천1동	
2	모현면	1개 교실	구갈동	1개 교실	풍덕천2동	2개 교실
3	남사면	1개 교실	상갈동	2개 교실	신봉동	1개 교실
4	이동면	1개 교실	구성동	1개 교실	죽전1동	3개 교실
5	원삼면		상하동	1개 교실	죽전2동	3개 교실
6	백암면	1개 교실	기흥동	2개 교실	동천동	1개 교실
7	양지면	1개 교실	마북동	3개 교실	상현1동	2개 교실
8	중앙동		동백동	5개 교실	상현2동	2개 교실
9	역삼동		보정동	3개 교실	성북동	2개 교실
10	유림동		서농동			
11	동부동	1개 교실	영덕동			

2) 용인 통기타 동아리 대표자 회의

- 주민센터 기타반 강사, 동아리 대표와 준비회의 진행
- 용인 동부권 통기타동아리 대표자 회의 개최
- 용인 서부권 통기타동아리 대표자 회의 개최
- 대표자회의에서 용인통기타축제 추진위원 4명을 선출하여 공동대표 체계 마련

3)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

- 용인통기타축제 I (기흥구) / 7.18(토) 18:30 / 동백호수공원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동그라미	어디서무엇이되어다시만나라 지난여름날의이야기	7	예그리나	기도 삼포로가는길
2	메아리	내가 일어나	8	이분침표	영상 그대
3	브타기타	준비없는 이별 귀뚜라미	9	징검다리	푸른시절 You Are My Sunshine
4	소리공방	비오는날의수채화 해변으로가요	10	한울림	기타맨 애수의소야곡+목포의눈물
5	어쿠스틱 홀릭	먼지가 되어 사랑은하수다방에서	11	해피 투게더	사랑해 꿈을 먹는 젊은이
6	7STRINGS	별이진다네 웨딩케익			

– 용인통기타축제 II (처인구) / 8.15(토) 16:00 / 용인시청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동그라미	지난여름날의 이야기 애수의소야곡+목포의눈물메들리	5	소리여행	한사람 몽계구름
2	바람들꽃	사랑해 길가에앉아서	6	우쿨트리	그대없이는못살아 촛불잔치
3	석정 뮤지션	사랑의 트위스트 누 이	7	징검다리	길가에앉아서 목로주점
4	소리사냥	오늘같은밤 밤이깊었네	8	해피 투게더	토요일밤 어디서무엇이되어다시만나라

– 용인통기타축제 III(수지구) / 8.22(토) 19:00 / 죽전1동 탄천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기타치는 동사무소 사람들	베사메무쵸 창문넘어어렵פות이옛생각	7	수지기타하모니	환당고 빛속을돌아서
2	더와이즈	Wonderful Tonight Reflection Of My Life	8	수지한별기타	숲속의 작은 집 토요일밤
3	마시멜로우	첨밀밀 사랑은창밖에빗물같아요	9	어쿠스틱	옛시인의노래 눈이큰아이
4	보헤미안	사랑없인 난 못살아요 한마음	10	어쿠스틱파파	Take Me Home Country Bravo My Life
5	비르투오조	연가+진주조개잡이 민요연곡	11	하늘밴드	하늘에서온편지 오빠생각+반달
6	한마음 하모니	이루워질수없는사랑 바람이불어오는곳	12	행복한사람들	Pipe Line 웨딩케익

– 용인통기타축제 IV(용인시전체) / 9.19(토) 18:30 동백호수공원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더와이즈	Wonderful Tonight 먼지가되어	6	에버그린	밥만잘먹더라 귀거래사
2	브타기타	오늘같은밤 밤이깊었네	7	이분침표	님에게 영원한나의사랑
3	7STRINGS	하얀손수건 기차와소나무	8	향음	에델바이스 시월의어느멋진날에
4	어쿠스틱	옛시인의노래 눈이큰아이	9	강사프로젝트	제비꽃, 영원한친구 어쩌다마주친그대
5	어쿠스틱 홀릭	사랑은은하수다방에서 High High	10	초청가수 홍삼트리오	기도, 내사랑 Delilah, 꿈의대화

4)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구축

- 용인통기타축제 사업의 성과를 모아 장르연합모임인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결성
- 총 24개 동아리의 가입, 용인통기타네트워크 회칙 승인
- 4명의 공동대표 선출(강사대표, 처인구대표, 기흥구대표, 수지구대표)

3-6.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자체 사업 사업

-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자체 사업 수행



- 공연명 : 용인-성남 통기타배틀
- 일 시 : 2015.11.21.(토) 16:00
- 장 소 : 다인뮤직홀(오리역)
- 공연내용
용인 '브타기타' vs 성남 '더와이즈'
용인 '마시멜로우' vs 성남 '흰여울'
용인 '이분섬표' vs 성남 '포엠송'



- 공연명 : 故 김광석 20주기 콘서트
- 일 시 : 2016. 1. 9.(토) 16:00
- 장 소 : 다인뮤직홀(오리역)
- 참가동아리 총10개팀
동그라미 메아리 보헤미안 어쿠스틱
예그리나 징검다리 한가람밴드 브타기타
해피투게더 통기타늘사랑

4. 통기타로 통하는 용인(2016년)

4-1. 추진배경

- 2015년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을 통해 용인 지역 24개 통기타 동호회를 중심으로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구성하고 일상적인 활동 진행
-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을 통해 2016년에는 '용인통기타네트워크'가

자발성을 기초로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4-2. 추진방향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프로세스 구성
- 주민 생활권인 3개구(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나누어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 3회 진행하면서 조직 확대
- ‘문화가있는날’ 창작워크샵(용인통기타연합노래단프로젝트)를 통해 개별동호회의 역량 강화와 새로운 예술적 체험 계기 마련

4-3. 사업목적

- 통기타 동호회 활동을 통해 급속하게 도시화된 용인 지역 사회 내의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공동체 회복
-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를 통해 개별 동호회의 역량 강화 계기 마련
- 네트워크 차원의 창작워크샵을 통해 생활예술의 질적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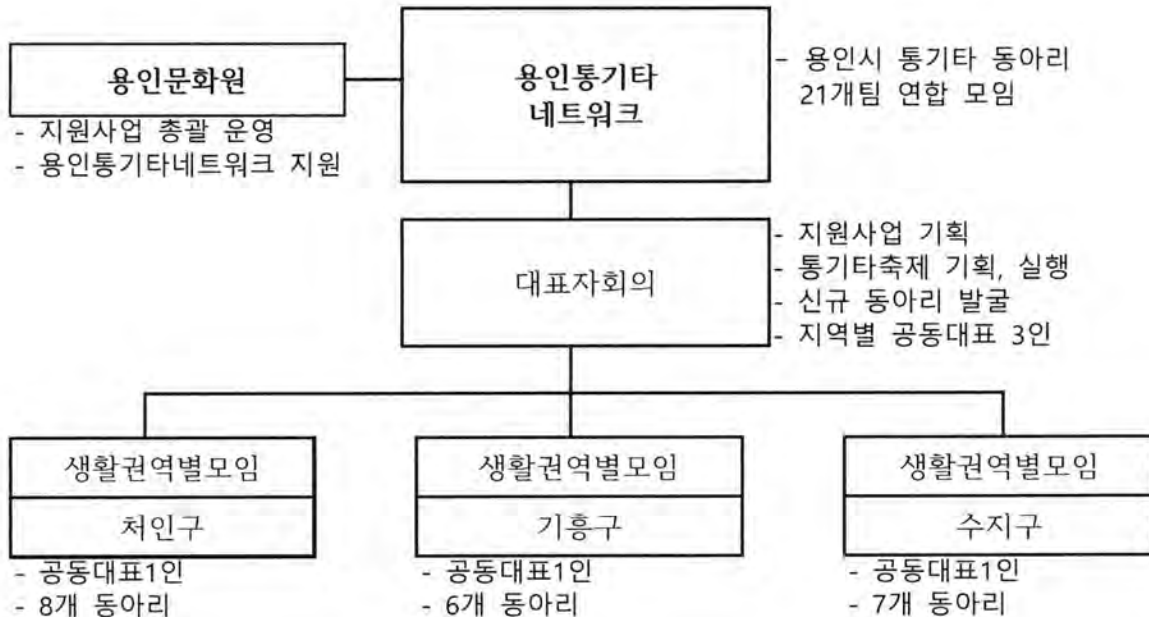
4-4. 추진 실적

단위사업	일 시	장 소	세부내용
매마수 창작워크샵 용인통기타연합노래단	4.27(수) 15:00	다인뮤직	- 통기타 합창 연습
용인통기타축제 I (수지구)	4.30(토) 16:0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탄천	- 참가규모 : 총 600여명 · 행사참가자 : 7팀, 36명 · 관람객 : 500여명
매마수 창작워크샵 용인통기타연합노래단	5.25(수) 15:00	용인문화원 다인뮤직	- 통기타 합창곡 연습
용인통기타축제 II (처인구)	5.28(토) 18:00	용인시 처인구 농촌테마파크	- 참가규모 : 총 600여명 · 행사참가자 : 12팀, 80명 · 관람객 : 500여명
용인통기타축제 III (기흥구)	6.26(일) 18:00	용인시 기흥구 동백호수공원	- 참가규모 : 총 1,000여명 · 행사참가자 : 12팀, 80명 · 관람객 : 1,000여명
매마수 창작워크샵 용인통기타연합노래단	6.29(수) 15:00	용인문화원 다인뮤직	- 통기타 합창 연습

4-5. 세부 추진 실적

1) 용인 통기타 동아리 대표자 회의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자체 조직의 역량으로 사업 진행



2) 문화가있는날 창작워크숍 '통기타합창단 통통용인 노래단프로젝트'

- 목적 : 용인 통기타 연합노래단 육성

- 참가대상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소속 회원 30여명

- 사업내용

- 용인통기타노래단 구성 및 공동 창작을 통한 레파토리 습득
- 용인통기타축제에 합동 공연 참가
- 워크숍의 결과물로 통기타삼국열전에서 통기타 대합창 공연

3)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

– 용인통기타축제 I (수지구) / 4.30(토) 16:00 / 죽전동 탄천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동그라미	먼훗날 젊은태양	5	페파민트	차라도한잔 그대없이사는못살아
2	동백메아리	나어떡해 그댄봄비를무척좋아하나요	6	이분침표	그대면곳에 아빠와크레파스
3	수지 기타하모니	젊은연인들 나같은건없는건가요	7	분당요들클럽	아름다운베르네산골 테네시요들폴카
4	해피투게더	사랑하는마음 사랑의트위스트			

– 용인통기타축제 II (처인구) / 5.28(토) 18:00 / 용인농촌테마파크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해바라기	여고졸업반 여고시절	6	페파민트	차라도한잔 행복의나라로
2	나인스타기타	두 개의 작은별 사랑해	7	행복한사람들	바람 작은새
3	보헤미안	어서 말을 해 한마음	8	어쿠스틱홀릭	화장을고치고 누구없소
4	어쿠스틱	옛시인의노래 숨바꼭질	9	이분침표	그대면곳에 아빠와크레파스
5	에그리나	사랑하는그대에게 Let it be me			

– 용인통기타축제 III (기흥구) / 6.26(일) 18:00 / 동백호수공원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교동에서기타치는사람들	내 일 고래사냥	1	어쿠스틱파파	사랑합니다 일어나
2	동백메아리	별이야기 귀거래사	2	소리공방	붉은노을 내가말했잖아
3	동부통기타	연가 울릉도트위스트	3	에그리나	기도 사랑하는그대에게
4	레인보우	해화동 제주도의푸른밤	4	징검다리	짝사랑 나는못난이
5	브타기타	세상모르고살았노라 사랑의썰물	5	한가람밴드	여름 나성어가면
6	보헤미안	홀로아리랑 어서말을해	6	한울림	영상 푸른시절
7	7Strings	내일이찾아오면 편지	7	동백청소년	Obladi oblada 밥만잘먹더라

4) 2016년 지원사업 참여 현황(총 24개 동아리 191명)

	동호회	참여인원		동호회	참여인원
1	교동에서기타치는사람들	4	13	어쿠스틱	3
2	동그라미	6	14	어쿠스틱홀릭	7
3	동백메이리	14	15	에그리나	17
4	나인스타기타	6	16	이분침표	5
5	보헤미안	14	17	징검다리	5
6	브타기타	4	18	페파민트	6
7	동백동청소년기타	9	19	통통용인	15
8	동부통기타	9	20	한가람밴드	12
9	레인보우	4	21	한울림	10
10	세븐스트링스	6	22	해바라기	10
11	수지기타하모니	6	23	해피투게더	6
12	어쿠스틱파파	6	24	행복한사람들	7

4-6. 용인·성남·군포 통기타 三國熱戰

- 권역의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를 통한 생활문화 진흥
- 지역간 차별화된 생활문화 콘텐츠 교류를 통한 상호 문화역량 강화
- 사 업 명 : 군포·성남·용인 생활문화 삼국열전(三國熱戰)
- 참여주체

용인문화원(용인통기타네트워크), 성남문화재단(사랑방문화클럽), 군포문화재단(군포생동감)

진행순서

일시
2016년 7월 30일(토)
10:00~21:30

장소
용인 동백호수공원
상설무대

참여대상
3개 지역 13개
통기타동호회 81명

프로그램
통기타동호회 네트워킹 및
마스터클래스, 교류공연

네트워킹 & 마스터클래스(10:00~13:00)

3개 지역 13개 동호회 교류
통기타 대합창 마스터클래스(강사 신성봉)

교류공연(18:00~21:00)

- Ⅰ. 오프닝 어쿠스틱힐링, 보헤미안, 세븐페퍼
- Ⅱ. 통기타 삼국열전
 - Round 1 여성시대 블루버즈, 고은소리, 소리공방
 - Round 2 통생통사 한울림소리, 브타기타, 분당요들클럽
 - Round 3 진검승부 소리모아, 여섯줄사랑, 이분침표
- Ⅲ. 통기타 대합창 통통용인, 전체참가동호회

교류프로젝트명	군포	참여동호회 성남	용인	계
여섯줄의 하모니	소리모아(5) 블루버즈(3) 한울림소리(6)	분당요들클럽(4) 고은소리(6) 여섯줄사랑(10)	어쿠스틱힐링(4) 소리공방(7) 보헤미안(7) 이분침표(5) 세븐페퍼(4) 브타기타(5) 통통용인(15)	13개 동호회 (81명)

4-7.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워크샵

1) 연합노래단 ‘통통용인’ 마스터클래스

- 일 시 : 2016. 9.28(수) / 10. 7(수) 총 2회
- 통기타합창곡 레파토리를 전문 강사의 마스클래스 진행
- 제27회 처인성문화제(용인문화원), 경기인천생활예술한마당(성남문화재단) 참가

2) 용인통기타네트워크 합동 워크샵

- 일 시 : 2016.10.22.(토)
- 장 소 : 용인청소년수련관
- 강의1. ‘천년의 사랑’ 작사가 이현규의 노래이야기
- 강의2. 노래를 잘 부르기과 발성



용인 통기타동아리
대표자회의(2015년)



용인통기타동아리 축제(2015년)



용인통기타네트워크창립총회(2015년)



용인통기타동아리 축제(2016년)



용인·성남·군포 통기타 三國熱戰(2016년)

지역 내 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 및 지원의
HUB기관으로써의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오민영
평택문화원사무국장

I. 개요

2013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세우며 우리의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를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생활문화예술과 문화동아리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생활문화예술, 또는 동아리는 소수의 직업적 엘리트에 의해 독점된 예술이 아닌 '시민 혹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을 의미한다.

2014년 1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동호회 지원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1월 28일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등이 조성 운영되어 국민에게 많은 문화예술의 보급과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단순관람과 강습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특화되어 있어 점점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와 욕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존

문화기반시설과 지방문화원의 운영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예술가와 관객, 창작자와 소비자의 기존 관계에서 벗어난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속에서 문화예술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있어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정부의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지역차원의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환경조성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평택시 문화정책은 전문문화예술단체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자생적 생활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의 간접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문화예술 수요자로서 시민들이 직접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일상 생활공간의 문화공간화 등 환경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란 전문예술인에 해당하지 않고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모임 및 단체를 말한다. 1)문화생태계의 풀뿌리인 문화예술동아리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을 비롯한 지전 제시자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문화예술동아리가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총괄적인 리더 역할을 해야한다. 둘째, 체계적인 조사 기법에 근거한 '생활문화동아리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생활문화동아리의 규모 및 활동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실태조사 후 생활문화 동아리 간 그리고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확산하여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평택시민들의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정책과제를 도출한 후 향후 사업 주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구경북연구원, 대경CEO Briefing

II.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풀뿌리

1. 문화예술 동아리

일반시민 및 문화예술 향유자 중심으로 자생적, 자율적으로 문화 활동을 펼치고 가꿔나가는 사람들의 풀뿌리 모임으로 2)소수 전문가들의 예술 활동이나 소위 예술계라고 불리는 특정 제도나 집단 안에서의 활동에 대비하여 일상생활의 영역, 즉 일, 가족, 사고 등의 사적 영역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공공단체, 주민자치센터, 문화시설, 아파트, 학교, 종교기관, 기업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동아리 등이 대상이며 이는 개인 단위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문화를 학습하고 문화적 가치를 공공적으로 교환하거나 파급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1) 문화예술 동아리의 유형³⁾

① 친목형 동아리

친목활동을 위주로 하고 취미와 관점을 공유하는 동아리

② 학습형 동아리

학습 및 정보교환 활동이 위주이며 커뮤니티 교류나 지역사회 참여는 저조한 동아리

③ 참여형 동아리

학습 및 발표 활동 외 지역사회 참여를 시도하는 동아리

예) 악기교육을 통한 공연 동아리

④ 공헌형 동아리

높은 리더십 지수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동아리

예) JC,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등

문화예술동아리 유형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적 조직, 주체적 결정, 주체적 표현의 원칙을

2) 강윤주,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2012)

3) 성남문화재단의 '문화클럽 유형별 특성'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구현하는 활동적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유형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동아리의 성격에 따라 어떤 동아리는 사회적 사교에 치중하고 어떤 동아리는 예술적인 기예의 습득에 치중하고 어떤 동아리는 매우 폐쇄적이며 어떤 동아리는 매우 개방적이다.

친목형 동아리, 학습형 동아리, 공헌형 동아리와 달리 참여형 동아리는 꾸준히 지역사회 참여를 시도하고 하고 있으나 시간적, 공간적, 금전적 어려움을 공적영역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극히 적은 부분에서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외국의 동아리 지원사례

1) 영국: Voluntary Arts Network(VAN)

문화예술 동호회와 유사한 개념이 'Voluntary and amateur arts group'이다. 자기 계발, 네트워킹 또는 여가활동으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그 단체 구성원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예술 그룹을 지칭한다.

영국인의 예술참여 중 20% 정도는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약 49,140개의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있다. 공공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게 특징이다.

VAN은 1991년 영국과 아일랜드의 각 예술 및 공예 분야의 포괄 조직을 연결하는 통설기구 형태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을 맺으며 활발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협력관계 단체는 지역사회 축제(조직)이다.

2) 벨기에

2004년 통계조사에 따른 네덜란드어 지역에서만 8천 여 개의 자발적 예술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원정책의 방향은 다문화 사회인 벨기에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게 문화집단 및 개인 간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프랑스

1996년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자발적 예술 동호회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며, 그중 23%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방 정부의 자율권이 강하여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으나 예술동호회를 위한 공간은 지원하고 있다.

4) 독일

자발적 예술 동호회가 각 주별로 활성화되어 있고, 센터 안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하며 장르 간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되고 지역의회나 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연방정부가 관여하며 지역, 연방 차원의 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5) 미국

중앙정부가 자발적 예술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 지역정부의 소관이다. 직접적 지원보다는 지역의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일본

자발적 예술가들의 전국 축제인 '국민문화제'가 1886년부터 일본 문화청과 지역 정부의 협력 하에 개최되고 있다. 매년 다른 지방 정부가 주최를 하고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지방문화의 품격을 격상시키고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3. 국내 동아리 지원사례

1) 성남문화재단_성남문화클럽

사랑방문화클럽 지원사업은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주체가 되어 클럽들의 자생적 활동을 강화하고,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에 따라 성남시의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만든 프로젝트이다. 초기 사랑방 문화클럽 구축을 위해 실태조사(2006년), 클럽지기 운영위원회 구성(2007년),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2008년 3월 100개 클럽 포함)을 시작하였다.

- 사업 내용

- ① 문화클럽 활동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첫째 기관, 시설, 기업, 동네, 학교 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 지원 하고 있다. 둘째 문화 예술 강사, 기획자 등 전문예술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장르별 전국단위사업 및 국제심포지엄 등의 해외 네트워크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

- ② 공간 지원 사업

연습 및 공연, 전시공간 확충(사랑방아트홀, 사랑방 지정공간)을 위해 성남 지역 공공기관, 민관기관, 기업 등과 접촉하여 유휴공간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③ 문화통화사업

문화예술 생산, 소비, 유통의 자생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작되었다.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문화클럽 회원 97명, 개인 회원 445명, 기관 회원 1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화 자원봉사, 지역 통신원 활동, 문화예술 수업을 하는 품앗이학교 강의로 문화통화를 지급받고, 이를 문화공간(문화사랑방) 이용, 공연 및 전시, 품앗이학교 수강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성남의 문화예술동호회, 예술인들의 문화예술창작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 ④ 사랑방문화클럽 페스티벌 개최

매년 지역 내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문화클럽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민간주도의 축제로 문화재단은 관리만 담당한다. 더 많은 클럽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 아마추어 클럽들이 전통공연장과 미술관에서 그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⑤ 문화공헌지원 프로젝트

2008년부터 5개 문화클럽으로 구성된 하나의 팀이 5회 이상 지속사업을 실행하는 프로젝트팀에 대해 지원한다. 선정된 팀은 소외계층과 함께 문화예술지원, 마을문화예술 활성화사업, 공공시설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한다. 이에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섹터가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마을축제로 이어가고 있다.

2) 인천문화재단_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 사업개요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문화활동을 육성하고자 한다.

• 사업 내용

사업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청소년 문화예술활동(발표활동 및 발표를 전제로 한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간접 지원을 통해 시설, 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 강사 등) 연계 등을 지원한다. 원하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도 함께 병행한다. 인천시는 자생적인 생활예술동아리의 지속적인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하여 인천생활문화예술협의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

3) 기타 사례

표1 각 지역-권역별 생활문화 관련 사업 및 활동 주요사례

권역	사업명	사업 및 활동주체
서울	마을예술창작소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	서울문화재단
	문화재단 사업	성북문화재단
	문화원 사업	성북문화원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생활연극네트워크	연극학교
	삼각산재미난마을	삼각산재미난마을(민간)
인천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인천문화재단
	인천왈츠	
	연합사업	인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연합놀이터
경기	사랑방문화클럽	성남문화재단
	부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부천문화재단
	학습원 프로그램	광명 평생학습원
	파출소가 돌아왔다	군포문화재단
	웃다리문화촌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포천문화원
충청	충북 문화예술 플랫폼	충북문화재단
	문화공동체 프로젝트	대전문화재단
	문화교육사업	대전 한밭문화마당(민간)
	문화예술교육사업	아산문화재단
	문화고리	청주문화원
경상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부산문화재단
	문화우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교실	부산울속도문화회관
	마을공동체사업	부산금샘마을공동체(민간)
	생활예술모임	부산생활예술모임 '곶간'(민간)
	문화학교강좌	경주문화원
전라	전라북도 문화예술동호회	전라북도
	어울마당	익산문화재단
	문화나무예술단	광주문화재단
	문화의집 프로그램	광주 농성문화의집
	마을만들기 사업	진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전주 시민문화놀이터	동물예술거리추진단
강원	문화예술교육 키움터	강원문화예술교육진흥센터
	생활문화공동체	춘천시문화재단
	시민예술가 예술지원	강릉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원주문화재단
	시민문화센터 프로그램	원주 시민문화센터
제주	월평마을프로젝트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4. 사례조사 시사점

1) 해외 사례 시사점

문화예술동아리 모임 간 협업적 작업 활성화 및 예술가와 문화예술동아리 간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동아리의 수준을 제고 하고 있으며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 최소화를 통해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자생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있음.

2) 국내 사례 시사점

타 지자체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공간 운영을 문화예술동아리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동아리의 수준 제고를 위해 강사, 교육프로그램지원 및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증대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를 통해 발표의 기회를 확대시키려 하고 있음.

III. 평택의 문화예술 동아리

1. 평택문화원-웃다리문화촌

1) 개요

① 배경 및 목적

폐교된 (구)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조성하였다.

② 내용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에 위치한 문화예술체험학습장으로 2006년 8월 개관하여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이 운영하고 있다. 웃다리문화촌의 건물은 2000년 폐교됐던 구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를 새롭게 단장한 것으로 8개 교실과 창고를 개조해 회화, 도예, 목공예, 석화공예, 웃다리박물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지향하며 전문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강좌와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각종 예술품부터 농촌체험까지 다양한 체험학습은 일일체험, 정기강좌

로 운영되고 있다.

2) 현황

체험프로그램 외에도 캠핑장 및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이라는 컨셉으로 차별화된 공간운영전략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로로 일일강좌 / 상시강좌 / 정기강좌와 함께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장승과 솥대’와 농악동아리 ‘풍사락’, ‘진도북놀이’가 운영되고 있다.

2. 평택문화원-한국소리터

1) 개요

①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전통문화와 평택 고유의 문화예술 발전과 인재개발과 특히 낙후된 서부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의 확보를 위해 조성.

② 내용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평택호관광단지 내에 위치하며 국,도비 포함 총 256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 11월11일 개관하여 평택문화원이 수탁 운영중이며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램과 함께 체험, 교육,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평택호반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망과 함께 서해로 떨어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곳으로 8,223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69석의 지영희 홀, 카페테리아, 중, 대연습실, 회의실, 강의실, 게스트하우스, 녹음실과 함께 지영희국악관을 운영 중이다.

2) 현황

장소의 특성상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프로그램(달콤한 유아클래식, 덩기덕 쿵덕 신나는 우리소리, 퓨전국악, 문화와 당신의 수요일)을 많이 운영 중이며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동아리‘지영희 청소년국악단’, ‘꿈의 합창단’, ‘영아티스트 프로젝트’,와 국악동아리 ‘경기민요보존회’, 거북놀이보존회, 평택농악보존회, 앙상블 秀가 활동중에 있으며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한 연수프로그램, 녹음스튜디오를 통한 음반작업을 하고 있다.

3. 평택예총

1) 개요

① 배경 및 목적

평택의 문화예술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향토예술의 창달로 평택의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현재 8개지부(미술, 사진, 국악, 연애, 음악, 무용, 문인, 연극)로 이뤄져 1989년 창립되었다.

② 내용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남부문예회관에 위치, 전문예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평택에서 진행되는 예술행사(소사벌예술제, 스마트영상제, 락페스티벌)와 축제(억새축제, 물빛축제)와 교육프로그램(시민예술대학)을 운영중에 있다.

2) 현황

평택시민예술대학은 19개강좌 22개 반 500명이 수강중에 있으며 남부문예회관과 북부문예회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으로는 수채화, 유화, 소묘, 문인화, 실크스크린, 한문서예, 문예창작, 플롯, 가야금, 재즈발레, 난타, 디지털사진, 포토샵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은 연발 졸업발표회와 전시를 하고 있다.

4. 팽성예술창작공간

1) 개요

① 배경 및 목적

안정리 미군기지(캠프햄프리스)앞의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공간으로서 창조적이며 독립적인 예술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아트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이다.

② 내용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주한미군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예전의 번영과는 달리 마을이 시설이 낙후되고 4)공동화되어

주민과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 비어있는 5)팽성보건소를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리모델링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2) 현황

주변에 주한미군이 많이 거주하고 왕래가 많은 곳으로서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한국어교실, 토크카페, 안녕평택투어)과 지역주역이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안정리상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 동아리 6)와글와글연습실, 수상한 의상실, 안정리골목공방과 7)마토축제, 코스튬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5. 22개 읍면동 동아리 프로그램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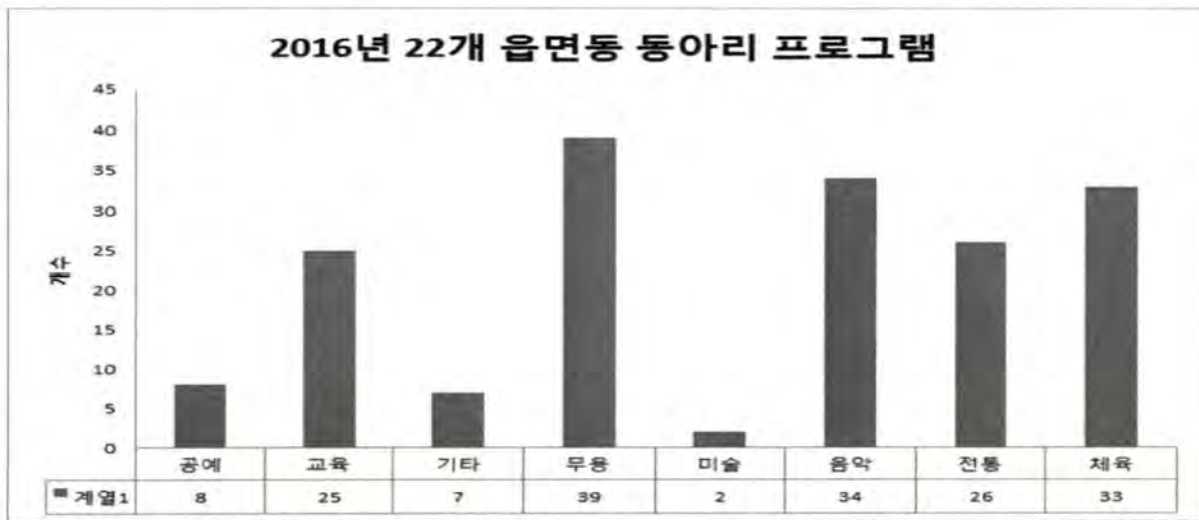
1) 22개 읍면동 동아리 프로그램



북부, 남부, 서부권역의 3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져 있는 평택은 1995년 3개시군(송탄시, 평택군, 평택시)이 통합되면서 이뤄진 도농복합 도시로써 평택시로 통합되어 있지만 권역별 중심지역과의 거리가 멀고 중간지역이

- 4) 도심지역 내에서의 지가급등 및 각종 공해로 인해 주택들이 도시외곽으로 진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택은 줄고 결국은 공공기관, 상업기관만 남게 된다. 이리하여 도심은 텅 비어 공동화되고 외곽지역은 밀집되는데 이것이 도넛과 같다고 해서 생긴 명칭이다.
- 5) 팽성복지타운이 생기면서 보건소가 이전해갔다.
- 6) 팽성치어리더연습실로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음.
- 7) 마지막토요일의 축제라는 뜻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이뤄지며 주한미군 등 외국인과 지역상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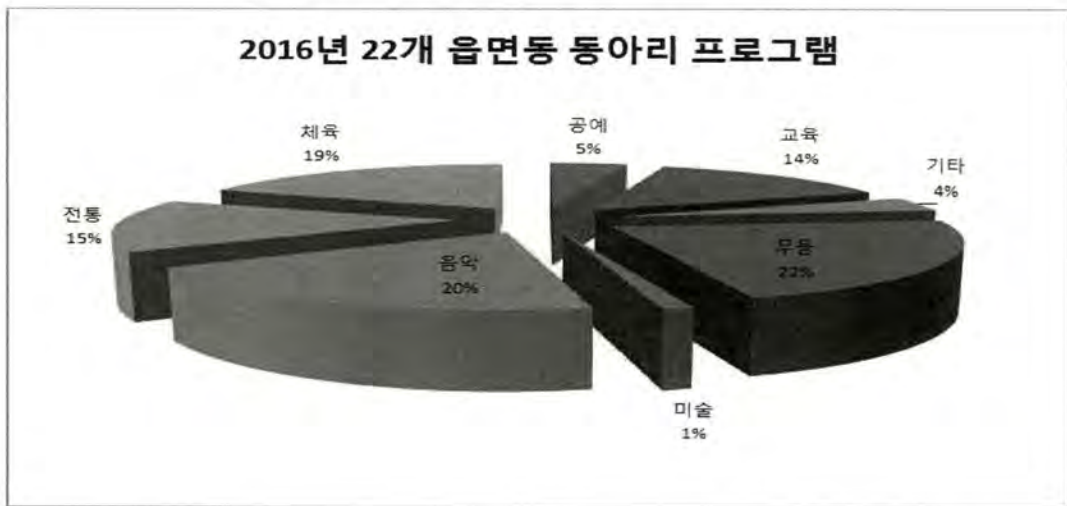
농업지역으로 이뤄져 권역별 이동시 체감거리가 멀고 주민들은 아직 지역 색이 남아있다. 현재 22개의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2016년 10월 기준 47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 안중읍,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신평동, 원평동, 통북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의 동아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6년 운영되고 있는 22곳의 총 17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사결과 무용, 음악, 체육 전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표2 2016년 읍면동 동아리 활동 비율

활동분야	동아리수	비율
공예	8	5%
교육	25	14%
기타	7	4%
무용	39	22%
미술	2	1%
음악	34	20%
전통	26	15%
체육	3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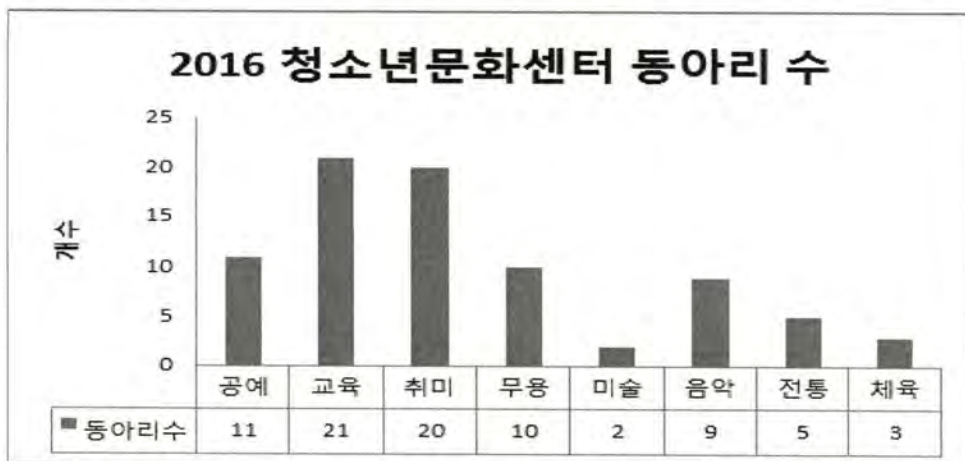


동아리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결과 활동 공간, 강사료, 운영비 등과 같은 직접지원에 대한 요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직접지원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청 및 주민자치센터 차원의 정기적인 후속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간접 지원에 대해 요구도 있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문화 봉사를 실천을 하고자 함으로 이에 따라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인력과 연계를 통한 질 높은 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

2)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동아리 현황⁸⁾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는 81개의 동아리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8) 평택시 합정동392 평택시 공설운동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속이다.

표3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 동아리수

활동분야	동아리수	비율
공예	11	14%
교육	21	26%
취미	20	25%
무용	10	12%
미술	2	2%
음악	9	11%
전통	5	6%
체육	3	4%

세부적으로 동아리를 살펴보면 컴퓨터를 통해 하는 교육프로그램(3D프린터, 3D펜그리기, 로봇만들기, 영어게임만들기), 그리고 과학체험,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어들과는 다르게 교육분야와 취미로서의 동아리를 선호하고 있다.

그 외 YMCA, 평택시 여성회관등의 동아리 등을 살펴 보았으나 자원봉사회 결성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활동분야는 독거노인 생활지원,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 시설아동 간식지원,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 등을 하고 있다.

IV.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및 지원Hub기관으로서의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1. 평택시 문화예술계의 현실⁹⁾

2014년부터 해마다 평택시의 문화예술계 살림살이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 전체 예산 3억5000만원 가운데 108개 단체 109개 사업에 3억 4995만원의 지원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9) 손창완, 평택의 생활문화동아리 운영의 현주소 및 과제 (2016년 생활문화동아리 세미나)

단체는 문화동아리가 아닌 특정단체에게 가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건강걷기대회 800만원 ▲소외계층 평생학습증진을 위한 야간학교 72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지도·교통질서확립 720만원 ▲통북천 환경사업·걷기대회와 애향음악회 700만원 ▲하천 옛 모습 찾기와 EM을 활용한 친환경 실천운동 7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 77개 사업 2억 2675만원 ▲복지 분야 4개 사업 1330만원 ▲건강분야 3개 사업 1700만원 ▲소비자보호분야 4개 사업 1590만원 ▲환경보호분야 7개 사업 2455만원 ▲재난구조분야 7개 사업 1755만원 ▲교육 분야 3개 사업 1280만원 ▲안전이나 기타분야 4개 사업 2210만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축소된 예산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한 지역의 아마추어 동호회나 예술단체의 공연·전시·정기연주회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 문화예술행사 시민제안공모사업’에서 7개 단체가 선정돼 각 단체마다 360~450만원씩 차등해서 전체 27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집행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역신문에서 제각기 밝히고 있는 것이 지역축제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고 특정단체에게 몰아주기 식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고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방증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 발전하려면 문화가 살아있어야 한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 이 문화발전은 지역문화가 그 원천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또한 문화동아리 활성화가 바로 지역문화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문화예술 사업비 지원목적은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삶의 공간에서 예술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기 결정력, 창조성, 자율적인 의사소통의 영역을 제공하고 10)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비전 실천의 주체 형성을 위해 핵심역할이다.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면적이 비교적 넓은 평택시의 경우 시설확충에 필요한 경비와 운영유지관리비 부담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시민 개개의 창의적 활동이 살아날 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문화예술동아리를 실체로서의 시민주체 창조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생활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통해 계층 간 경제적 차이로 인한 문화적 자본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문화예술동아리의 열정을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문화의 튼튼한 토대가 되도록 육성이 필요하다.

약화된 커뮤니티, 경제적 양극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민 생활문화예술 활동 모임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시민들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문문화 예술단체 성장의 토양을 가꾸고, 저변을 확대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 예술생태계 11) 선순환구조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와 아마추어 문화예술 모임이 서로 연계된 사업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의 장이 확대되고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갖추게 할 수 있다.

10) 평택시 민선5기(김선기시장) 시책이었으며 민선6기(공재광시장)에서도 구현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평화예술의 전당, 무형문화전수관 건립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1) (善循環) [선:순환] 순환이 잘됨. 또는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됨

표4 경기도 문화기반시설 현황표¹²⁾

(2015. 1. 1 기준)

시·군·구	합계	국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 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경 기(31)	481		217	201	11	5	143	60	72	11	44	10	31	3	35	31	11
수 원 시	33		22	18	2	2	6	4	1	1	2	1	1		2	1	
성 남 시	20		11	10	1		3	2		1	1	1			2	1	2
부 천 시	24		11	9		2	11	10	1						1	1	
안 양 시	14		8	8			3	2	1						2	1	
안 산 시	21		9	9			5	4	1		5	2	3		1	1	
용 인 시	35		13	12		1	15	3	8	4	4	1	3		2	1	
평 택 시	11		7	6	1										3	1	
광 명 시	10		4	4			3		3							1	2
시 흥 시	13		9	9			2	1	1		1		1			1	
군 포 시	8		6	6											1	1	
화 성 시	21		11	10	1		5	2	1	2					2	1	2
이 천 시	13		4	4			4	2	1	1	2	1		1	1	1	1
김 포 시	9		4	3	1		2		2		1		1		1	1	
광 주 시	14		5	4	1		5	1	4		2		2		1	1	
안 성 시	11		4	4			4	3	1		1			1	1	1	
하 남 시	5		2	2			1	1							1	1	
의 왕 시	8		3	3			2	2			1			1		1	1
오 산 시	11		6	6			2	1		1	1		1		1	1	
여 주 시	22		3	2	1		14	3	11		3	1	2		1	1	
양 평 군	20		6	6			9	6	3		3	1	2		1	1	
과 천 시	12		3	2	1		4	2	2		3	1	2		1	1	
고 양 시	32		16	16			9	1	7	1	2	1	1		3	1	1
의 정부시	6		4	3	1										1	1	
남양주시	24		10	10			10	4	6		2		2			1	1
파 주 시	32		13	13			13		13		4		4		1	1	
구 리 시	6		3	3			1	1							1	1	
포 천 시	13		7	6	1		4	1	3						1	1	
양 주 시	11		5	5			2	1	1		2		2		1	1	
동두천시	4		2	2			1	1								1	
가 평 군	13		4	4			2	1	1		4		4		1	1	1
연 천 군	5		2	2			1	1							1	1	

12) 1995년 시군 통폐합으로 인해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각 시군마다 이전에 지어졌던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을 제외하면 47만명의 인구수에 비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게 나타난다.

일상을 중심으로 자발적 자원에서 이뤄지는 문화복지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시민을 능동적 참여자로 설정하고 시민들이, 시민들에 의한 정책 개발로 진화가 필요하다.

2) 목표

첫째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제를 정책 안으로 수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정책에서 민관 13)협치를 위한 소통 구조의 제도화하고 문화정책의 목표를 공급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으로 확장되어야하고 둘째 지역민이 삶의 공간 및 생활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자생적 문화 생태계 구현을 지향함으로써 문화예술동아리를 문화적 주체 형성의 요람으로 양성하고 시민 문화예술 활동의 선순환 구조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생활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로 시민의 문화정책 및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생활 속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대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은 문화를 매개로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예술향유, 체험, 공동발표 및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이뤄지는 단계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연계되어야 한다.

3. 지방문화원

각 지방의 향토문화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체. 1950년대 초에 미국공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화활동 및 상록수활동을 위한 사설기관으로 밀양과 대전 등 몇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전국에 확산되었다. 1962년 1월에 이들 문화원을 회원단체로 하여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를 결성하면서 각 사설기관이었던 문화원이 정

13) 협치(協治), 망치(網治), 공치(共治)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거버넌스는 정치학에서 핵심적인 키워드였는데, 거버넌스는 국제정치학 영역에서 도입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국가 내외의 정치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정확한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거버넌스'라는 용어도 '국가'나 '사회'등의 용어처럼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치학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위자들 간의 외부 권위나 내부적인 자기조절/자기 통제 메커니즘에 의한 조정과 관리'로 정의하고, 좁은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는 국가 내에서 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화된 권력으로 정의되는 정부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행위자 사이의 네트워크 방식의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정의한다.

부공인기관으로 되었다. 1965년에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다시 각 문화원이 특수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정부의 보조금과 시설의 무상대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말에는 139개로 증가되어 시·군을 단위로 문화원이 없는 곳이 거의 없게 되었으며, 1989년에는 159개, 1996년 181개, 2016년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16개의 시도연합회와 전국에 228개의 지방문화원을 두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은 문예진흥·지역향토문화보존전승·전통문화선양·지역문화행사개최·도서관사업·사회교육·문화복지증진·국제문화교류·문화예술교육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원은 향토문화를 발굴, 정리하고 향토사를 펴내는 활동을 통하여 각 지역의 향토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토축제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오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선도 및 평생교육진흥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¹⁴⁾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31개의 문화원이 있으며 그중 20개의 문화원이 독립원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10개의 문화원이 복합시설의 임대로 설치되어 있고 기타형식으로 1개의 문화원이 있으며 국비, 도비, 시비와 각종 공모를 통한 측면적인 지원과 문화원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직접지원하고 있다.¹⁵⁾

4.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

1) 문화예술동아리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향점 제시 및 총괄적 리더 역할

변화되는 사회에서 문화예술동아리들이 능동적, 전문적 대응을 위해 문화동아리 육성시스템 운영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 구축과 프로그램, 인력, 공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과 사업추진 시 예견되는 문제 및 관련 여건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과 조직 내부적으로 지역 밀착적 전략 수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동아리 사업의 안정적 지속화 방안 제시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하고 문화예술동아리들이

14) 네이버 지식백과를 기본으로 2016년의 현황에 맞춰 필자가 재작성

15) 2016년 11월 기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공헌할 수 있도록 정보와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

2) 문화예술동아리의 지원 방안

① 학습적 지원 : 문화예술동아리의 기량 향상과 2차 학습수요에 따른 강사 지원

② 지역사회 공연활동 지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공헌 활동 비용지원

③ 공간적지원 : 활동공간이 부족한 동아리를 위한 장소지원

④ 장비지원 : 공연, 전시활동에 필요한 음향, 악기, 전시기구 지원

⑤ 행정지원 : 각종 공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산문서 지원

⑥ 소통지원 : 동아리간 협의, 협업구조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통공간 지원

5.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방향

첫째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를 지원하여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지역문화 주체가 시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 서비스 대상은 지역 시민이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 문화주무부서나 지방문화원은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지역민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역 내 유·무형 자원과 인적자원의 활발한 매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컨설팅)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 및 청소년들의 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최근 시민들의 문화인식이 높아지고 예술활동을 접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정보활용 요구 증가 및 공연 등 사회공헌활동을 원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어 문화예술 동아리를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리간 교류 및 거리공연, 연 1회 동아리 연합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 향유기

회 확대한다.

셋째 문화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문화기반시설은 여가활동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어 동아리로의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리 활동 공간 마련,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구축, 동호회 참여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배치와 이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문화 예술 동아리가 발전성을 가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문 동아리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아리 활동의 발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일 영역의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적인 교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도자 확대 배치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윤주외(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
- 민인철(2013) 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 오동욱(2009) 대경CEO Briefing. 대구경북연구원
- 손창완(2016) 평택시의 생활문화동아리 현주소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과 전승방안
연구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민요를
중심으로-

김명수

화성문화원 학예연구원

1. 서론

한국사회가 발전하고 문화의 가치가 큰 비중을 가지게 되면서, 지역문화의 발전과 역할에 안팎의 시각이 향하고 있다. 또한 문화의 수용대상도 점점 더 넓어져 엘리트 중심의 문화자원 육성에서 생활문화와 생활체육에까지 관심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문화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통해, 그동안 소수에게 해당되었던 문화적 지원을 다양한 형태로 넓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실제로 합창이나 밴드, 사회인 야구 등 주류문화의 저변은 점점 생활문화로 유입되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통문화의 경우, 박제수준의 보존과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지원이 없이는 따로 생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전쟁이후 한국인의 가치관이 인본주의에서 물질 및 현세주의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고 근대화 및 산업화가 이어지면서 전통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시대상황은 급격한 전통문화의 소멸을 불러왔다.¹⁾ 이에 전통문화의 박제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소멸과정에서 귀중한 문화자원들을 구해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리고 그렇게 박제화 된 전통의 한국문화들은 고귀하게 신성화되면서, 현대 대중의 주류문화와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근대화과정의 반작용으로 신토불이로 대표되는 ‘우리 것 찾기’의 열풍과 『나의문화유산답사기』 등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양역사서의 성공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²⁾ 그럼에도 문화콘텐츠의 주류로 올라선 전통문화 관련 항목들은 여전히 소수이며, 전체적으로 ‘대단하고 신성하지만 재미는 없는 문화’정도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요즈음 생활문화가 중시되면서, 문화원에서는 생활문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던 문화강좌들을 동아리화 하거나 기존의 동아리와 협력하여 의미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시도가 진행되고

1) 유팔무, 「한국전쟁과 문화변동」, 『아시아문화』 16호(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217쪽.

2) 권숙인, 「소비사회와 세계체제 확산 속에서의 한국문화론」, 『비교문화연구』 4호(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쪽.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화원의 창립 목적 중 하나였던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과 보존노력의 성과물들과 생활문화사업 활성화 사업간의 연계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1994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발효되면서 정부가 요구한 사업 활동 중 지역고유문화보존 및 선양과 향토 사료의 수집이 1번과 2번에 규정되어 있다.³⁾ 어쩌면 지역문화원의 탄생과 함께 부여받은 역할이면서, 적어도 법이 제정된 1994년부터 근 20년이 넘도록 쌓아온 성과물들이 그저 학술적인 자료 수집에 그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활성문화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고민하던 중, 단절된 무형문화재를 복원하고 싶다는 한 지역주민자치위원회와 접촉하게 되었다. 민원인이 토로한 복원 무형문화재는 1997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기능보유자 박조원옹의 사망으로 단절된 경기도 무형문화제 27-2호 팔탄 상여회다지 소리이다. 민원인의 자치단체는 전수자는 없지만 녹음과 채록된 문서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 후로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며 문화재 복원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천편일률적으로 지정 공연되고 있는 기존의 무형문화재 방식이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문화로서의 전통문화 복원을 기획해 보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은 진행의 초기 단계이기에 동아리로 활동할 지역민들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로써 뚜렷한 성과물이나 과정의 결과보고서가 아닌, 접촉 과정과 기획 및 구상 그리고 논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하는 논문을 집필함을 밝히면서, 다음에 이어 논의를 시작하겠다.

2. 생활문화 기반 전통문화의 전승 현황과 난제

생활문화 기반 전통문화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전통문화는 그 나라에서 발생하여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

3) 1994년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8조.

고유의 문화를 말한다.⁴⁾ 본 논문에서는 전통문화 중 전문 연희자들이 공연을 위하여 만든 예술작품이나 기능을 배제하고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동체단위로 전승해온 문화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고도의 기예와 예술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의 경우에는 학계, 지자체, 관련정부부처와 문화원의 협력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성격의 전통문화는 문화원이 지원하는 생활문화동아리로서 육성 발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전통사회에서의 통과례나 생활의 필요성에 의해 전승되었던 문화들은 지역과 밀착되어 있는 문화원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큰 가치를 가진다.

2.1. 화성시 생활문화 기반 전통문화

두레와 상여, 당제와 대보름 굿 등 보편적인 생활과 관련된 문화들은 각 지역마다 그 전승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화들을 선정하여 문화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화성문화원에서 올해 지원을 계획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이름	내용
기안동 용줄다리기	태안읍 기안동, 정남면 보통리에서 진행되는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보통리 용줄다리기	
정남땅울림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을 맞아 진행되는 민속놀이 행사
남양읍 정월대보름	
장안리도당굿	장안리에서 행해지는 마을굿
전통석전대제 지원	금산사, 안곡서원에서 행해지는 석전대제 지원사업
왕재호상놀이	정남면 쾌랑리에서 행해지는 전통 민속 장례의식 재현 놀이
봉담역말농악보존회	화성지역 전통 농악보존회 지원
화성농악보존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준비 및 참가지원

4) 전자문헌 :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자 : 2016년 11월 3일.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238600>

2016년 화성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총 11개의 행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중 두 가지 행사가 지원금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행사진행을 포기하였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타시도와 차별점이 크게 없는 전통문화행사인 석전대제나 대보름행사 같은 경우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화성시만의 변별적이고 특별한 전통문화를 잘 드러내는 보통리 줄다리기와 왕재호상놀이는 행사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먼저 왕재호상놀이는 화성 정남면 왕재(왕천) 지역에서 전승되어 현전하여 오는 전통민속 장례의식으로, 마을에서 사람이 죽은 후 엮을 하고 상여를 꾸며 장지까지 운구할 때 마을 주민들이 망자의 넋을 기리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전체 과정은 총 5장으로, 널 액막음(널을 방에서 모시고 나올 때부터의 과정), 발인제, 길 떠남과 노제, 먼 길 떠남과 굴 지나기 및 개울 건너기, 달고질 등으로 구성된 화성시의 독특한 전통 장례 문화를 재연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다.

다음으로 보통리 용줄다리기는 화성시에 남아있는 대표적 민속행사로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시행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용줄당기기는 단순히 줄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민속놀이가 함께 펼쳐진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줄다리기는 사람들이 양쪽 두 패로 나뉘어 굵은 줄을 서로 당겨 자기편으로 끌어오는 쪽이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⁵⁾

2.2. 전승 단절의 사회문화적 배경

앞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전통문화 행사가 취소 된 것은 해당지역의 담당자들이 행사진행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그 이유가 대동소이하였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력의 부족이다. 행사를 진행할만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인

5) 문화다움(추미경외), 「화성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기초연구」(화성문화재단, 2015), 54쪽

데 이는 행사를 진행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라 청장년 인구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왕재호상놀이 같은 경우 상여를 꾸미고 그 상여를 나르며 긴 거리를 이동할 인력이 필요하고, 용줄당기기는 줄을 만들고 운반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청장년 인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탓에 대부분 고령자만 남아있는 농촌에서 행사를 진행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마을구성원들에게 마을행사 참여에 당위적인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지금은 확실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는 예산의 부족이다. 우음도 당제의 경우 전통적인 당제에서 소요되는 제물과 악사등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할만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 사실 당제는 마을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각출하여 진행자금을 모금하고 직접 행사의 계획과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래 모습이나 현재는 마을의 인구 감소와 타종교의 지역유입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 행사를 원형대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그 부족분을 채워넣을 만큼의 자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족분만큼의 지원을 지자체로부터 끌어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첫 번째 지적했던 인력부족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사회문화적 변동을 통해 가용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인건비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행사제반비용은 높아져 가지만 구성원들의 참여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행정력의 부족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인력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지출, 증빙정리등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어려워한다. 또한 예산집행의 지출과 증빙이 체크카드와 세금영수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 예를 들면 주최 측에서 행사 식비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녀회에 음식을 맡겼다고 했을 때 부녀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결제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영수증빙 자료를 위해 더 높은 가격의 사용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공적예산 집행사무과정에 있어 총체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문화원의 행

정력을 더 많이 지원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나, 대부분의 문화원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투입할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대부분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생긴 변화가 야기한 결과들이다. 줄다리를 위해 필요한 땀은 비닐포장을 해서 판매용으로 팔려나가고, 1인당 농사면적이 넓어지면서 과외활동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생업으로 마주하는 생활문화가 변모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기반으로 하였던 전통문화도 생활문화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논농사를 지으면서 불렀던 농요나 농악의 경우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노동요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또한 대부분 화장을 하는 장례문화의 변화로 인해 매장문화를 기반으로 하였던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는 그 효용적 가치가 상실되었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정체성을 발현하는 문화행사로 그 명맥은 유지하고는 있으나 실상 생활문화의 기반에서는 현대 대중문화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형편이다. 다행히 문화재 지정을 받거나 지역문화원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전통문화의 경우는 최소한의 형태로나마 전승이 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미 전승이 단절되었거나 앞선 언급한 경우들처럼 당장 내년에 다시 진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 지역전통문화 전승에 있어서 문화원의 역할과 위상

문화원의 사전적 정의는 '각 지방의 향토문화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체.'이다.⁶⁾ 미국 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1946년부터 지금까지, 문화원은 향토문화의 계발과 보급이라는 화두를 놓아본 적이 없다.⁷⁾

6) 전자문헌 :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자 : 2016년 11월 3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4885&cid=46615&categoryId=46615>

7) 한동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기능적 역할 연구」, 『역사문화연구』 44집(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282~283쪽.

이는 지역전통문화, 특히 생활기반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현재 지자체나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무형문화재의 경우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선정되면,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학술적 평가를 받지 못한 지역 전통문화유산들은 지자체나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무형문화재처럼 관리를 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발전 가능성의 가치가 있는 생활문화라도 급격히 도시화되는 흐름에 따라 효용성과 대중성을 잃게 되면 금새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화성시의 전통문화유산들도 아직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문화재는 아니다. 그렇지만 차별화되는 화성시만의 지역성을 가진 유산이기에, 본 문화원에서 지원하여 보존하여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여하에 상관없이 그 진행 실무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며, 우연찮게도 올해 모든 사업이 중단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방문화원이 처음 만들어진 후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사 직전에 처하게 된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 팔탄민요 복원 현황과 복원활동 경과

팔탄민요는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인 박조원 선생의 선소리로 불려진 생활민요다. 팔탄의 선소리꾼 박조원 선생은 1998년 9월 21일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 27-2호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 박조원 선생이 후계자 없이 타계함으로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다.⁸⁾ 2016년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안희만 간사와 시청 및 문화원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복원의지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화성문화원에서는 지원방식에 대해 고민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8) 전자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6년 11월 3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2769

회의에 참가한 후 생활문화동아리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고,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찾아가 운영방안을 제의하고 협의하였다.

3.1. 박조원 창본의 자료적 가치

1998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2008년 단절된 경기도 무형문화재 27-2호는 경기도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로 지정된 경기도무형문화재 27호의 두 번째 형태다. 1호는 양주, 3호는 양평이 지정되어있는데 1호와 3호는 경기북부의 대표소리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고 박조원 선생의 소리는 경기남부의 대표소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된 것이다.⁹⁾ 경기도 북부의 경우 장례절차 중 회다지소리를 할 때 논매는 소리를 차용하고 경기도 남부는 상여소리를 차용한다는 특징이 있다.¹⁰⁾ 박조원 선생의 소리는 전형적인 경기남부의 장례요 형태가 잘 보존되어있고, 가창 능력의 뛰어남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상여소리와 회다지 소리 외에 팔탄지역의 농요도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화성시 팔탄면의 농요에서는 타지역에서는 원래 없거나, 있어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조사하지 못한 긴 방아소리와 면생이가 채록되었기 때문이다.

방아타령은 말 그대로 방아를 찧을 때 하는 소리이다. 논매는 과정의 소리에서 방아 찧는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풍년으로 농사가 잘되어 방아를 즐겁게 찧는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아소리는 노동요에서 경기잡가로 발전하고 이후 근대초기 대중음악으로 정착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20세기초 일제강점기에는 가장 라디오에서 많이 방송된 민요일 만큼 인기를 자랑했기도 하다.¹¹⁾ 원시적 형태인 농요에서 근현대의 대중가요로 정착한 방아타령으로 발전할수록 점점 박자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길고 느린 긴방아 소리는 난이도

9) 강등학외, 『경기향토민요』(경기도국악당, 2007), 214~215쪽.

10) 강등학외(2007), 위의 책, 216~217쪽.

11) 장유정, 「20세기 전반기 〈방아타령〉 계 노래의 지속과 변모」, 『한국민요학』 30호(한국민요학회, 2010), 327쪽

가 높아 전승되기가 어려운 민요다.

한편 논을 맬 때 호미로 하는 애벌매기와 후에 손으로 논을 훑치는 일을 통털어 ‘면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부르는 농요도 면생이라고 한다.¹²⁾ 특히 선소리를 주는 사람이 부르는 부분은 정해진 리듬이 없이 자유리듬에 가까운 비(非)고정박 장단곡이라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¹³⁾ 민족음악연구소의 이소라 교수는 “부르기 힘들어 사라진 긴 입말의 긴방아와 문생이가 건재한 채로 팔탄농요가 녹취되었음은 화성지방 논맬소리의 전체적 위상을 드높이는 일.”로 평가한 바 있다.¹⁴⁾

이렇게 학계에서 평가하는 위상도 물론 주요하지만, 복원과 전승의 당사자가 될 팔탄면 주민들의 의견도 그만큼 중요하다. 팔탄민요 복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따르면 학계에서 평가하는 음악성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탄민요의 가사에 팔탄면과 화성시의 곳곳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난개발로 사라지고 있는 옛 고향의 모습이 복원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¹⁵⁾ 많은 민요의 사실부분에서 가창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설명이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지역적 특성이다. 함께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삶을 공유하는 지역민들에게 화성지역에 전승되어 온 민요의 지역적 특성의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정체성과 연대의식의 차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2. 팔탄민요의 단절 및 복원 시도

앞서 언급한대로 팔탄민요는 1998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2008년 기능보유자의 사망으로 그 전승이 단절되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12) 전자문헌 :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사이트」, 검색일자 : 2016년 11월 3일.

http://urison.co.kr/dokuwiki-cd/doku.php?id=gg:%EA%B2%BD%EA%B8%B008:%EA%B2%BD%EA%B8%B00808

13) 이소라, 『경기도 논맬소리 자료총서』 제 4권(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6), 123~124쪽

14) 이소라(2006) 위의 책, 140쪽

15)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안희만 간사와의 대화 녹취록, 녹취날짜 : 2016년 9월 13일.

상여·회다지소리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27호를 공유했던 양평과 양주가 경기도 북부이기에, 유일한 경기남부 소리로 지정되었던 화성 팔탄민요의 전승이 단절된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박조원 선생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화성 농요는 일찌감치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민요대전> 자료에 포함되어, <MBC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에서도 방송되었다.¹⁶⁾ 그런데 그것이 유지된 기간은 10년뿐이며, 그 안에서 후계자가 없어 단절되었다는 상황의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필자는 관계자와 질답을 가졌다.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안희만 간사는 그 문제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가장 가까이에서 소리를 하며 배우던 비공식 전수자가 있었으나, 그 전수자가 알코올중독에 가까운 상태여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가르칠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전수자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에 따라 자연히 활발한 공연활동이 어렵게 되고, 이에 결국 후학의 양성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농요를 하는 이들을 “어기”라는 말로 비하하며 좋게 보지 않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농요가 대중음악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대중매체가 없던 시절에 선소리꾼은 그 동네의 재주꾼으로 연예인과 같은 위상을 자랑했다.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조에 보면 왕이 농요를 잘 부르는 사람을 초청하여 노래를 시키고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뒷소리를 부르는 노동구성원들의 역할을 지휘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당도 더 많이 받는 귀한 몸이었다.¹⁷⁾ 그러나 농업이 기계화되며 선소리꾼의 역할이 사라졌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흥과 끼, 그리고 잦은 음주가 근면함을 중요시하던 당대의 덕목에 반하게 되면서 비하의 대상으로 추락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MBC에서 찾아와 녹음 부분이 방송되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듯하였다.

16) 전자문헌 :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사이트」, 검색일자 : 2016년 11월 3일.
<http://urisori.co.kr/dokuwiki-cd/doku.php?id=gg:%EA%B2%BD%EA%B8%B008>

17) 전자문헌 :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사이트」, 검색일자 : 2016년 11월 3일.
http://folkency.nfm.go.kr/munhak/dicPrint.jsp?DIC_ID=7371&xslUrl=dicPrint_Pop.jsp&printYN=Y

세 번째는 두 번째 이유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데, 박조원 선생의 전승의지가 약했던 측면이 있다. 과거에 박조원 선생에게 “왜 이 좋은 노래를 전승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이런 세상에 누가 이런 소리를 누가 배우려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생활문화적 효용을 잃어버린 전통문화가 무관심과 천대의 과정을 겪으며 사라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특히 어느 정도 지자체와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던 소리이기에, 지역민들과 행정가들의 노력에 있어 더 큰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이에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복원의지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화성시와 경기도에 복원 의사를 밝히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나 기관에서도 2008년 박조원 선생이 돌아가신 후 그 자료를 온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자료를 수소문하던 주민자치위원회는 MBC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를 제작한 최상일 PD에게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고, 녹음자료와 채보자료 등 화성시 구장리에서 채록한 자료 일체를 모두 전달받아, 지금은 그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지자체와 복원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현재 박조원 선생이 살던 구장리 밀양박씨 종친회와 지역단체에 복원의사를 밝히고 협조를 구해서 팔탄면 내부 구성원들과는 복원의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공유를 한 상태이지만 2년의 기간이 흐른 상태라 지쳐가고 있었다.

3.3. 문제점과 한계

그 와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자체의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원등의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축적한 자료는 지자체와 상관없는 방송사의 관계자 개인 자료가 모든 바탕이 되었다. 이렇듯 자체적 자료를 아무 것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예산과 기 조사된 자료가 미비하다는 변명만 외치는 모습에 많이 실망했다는 것이다. 문화재 지정을 받기 전 자료는 차치하더라

도, 문화재로 지정받은 후라면 지정과정에서 평가했던 자료부터 시작하여 근거가 될 만한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작 필요한 쪽에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필자도 문화원 내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등 도단위의 문화단체들에서 만든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화성시에서 만든 시사 등의 자료에 팔탄민요의 개요와 특징, 악보 정보는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보유자와 전수자가 없는 상황의 복원과정에서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성·영상 채록자료가 대부분 외부의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자료를 찾은 이후에 복원 시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과정에 지원을 요청 했으나 시나 문화원 자체의 복원 의지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자료를 복원하고 지역주민에게 교육하는데 도움을 줄 전문가를 찾고, 보존회를 목표로 단체를 조직하는 준비과정에 진행비가 필요한데, 이에 지원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대답만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도움을 요청했던 학계 인사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하였는데,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료의 사유화였다. 어떤 전문가는 팔탄면 민요에 대한 자료를 자신이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해당 자료가 있다는 증거가 될 만큼의 적은 양의 자료만을 공개한 후, 지자체 및 문화원과 자신이 접촉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만을 주민들이 감당해주기 바랬다고 한다. 요컨대 전통문화 복원과정에 있어 그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야한다는 입장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복원사업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정하고, 결국 방송 PD까지 찾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필자에게 주어진 안타까움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태도에서 지역문화 복원의 청사진과 목적이 대부분 지역의 축제화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출신지를 사랑하는 애향심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에서 지역축제가 나온 맥락은 이해하지만, 지역민

의 소속감 고취보다는 지역 축제화를 통한 경제적 이윤창출에 그 목표의 방점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팔탄민요가 가진 예술수준에 대한 평가가 문화재지정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단절 이후 다시금 복원하여 계승하는 입장에서 팔탄민요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예술성 복원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해 보였다. 다만 이런 지점들은 복원 시도과정에서 각 주체들, 특히 지자체와 문화원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답변과 접촉을 통해 도움을 충분히 받았더라면 나아질 수 있었던 부분이다. 지자체의 문화관련 행정 부서와는 달리 문화원은 학술적 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의 자료적·미학적 이해에 있어 지역민에게 적절한 학술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화원에 더 많은 책임의 성찰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을 고려해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재 복원에 생활문화동아리 모델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착안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전문적 무형문화재 제도과정을 통한 전통문화보존회 형태를 정립하기 전에, 먼저 전통문화를 학습하고 향유하는 생활문화동아리 방식으로 문화원이 지역민들의 주도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종국에는 사라져간 팔탄민요 무형문화재의 복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4.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과 전승

생활문화동아리 형태로 보존회의 기초단계를 만드는 작업은 이전에 시도해 본적이 없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아리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내지는 못한 시점이다. 지금은 해당 예산을 지원하여 기초모임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세미나와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동아리형태의 기초과정을 만들어보자는 의견과 기초적인 구상을 공유하였음으로 그 구상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것으

로 4장을 구성하고자 한다.

4.1. 생활문화동아리와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의 접점

팔탄면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박조원 선생의 민요는 유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의례에 사용되었던 생활문화의 일부이다. 팔탄민요가 주목받게 되었던 것은 긴 방아소리와 면생이의 보존 등 어려운 예술을 구현해낸 예술적 가치와 생활문화로서의 노동을 더 충실히 재연,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많은 문화재들은 보존의 시급함을 이유로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문화재 보호법 2조 2항을 보면 무형문화재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999년 개정된 기존의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무형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¹⁸⁾ 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같은 법령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공연 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라는 표현으로 확대되었다.¹⁹⁾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제도가 변한 것에는 그동안 무형문화재 선정과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원형론(原型論)에 대한 변화를 주문한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형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나 대부분 민속경연대회 참가 때 공연형태로 전환을 위하여 그 내용과 형식에 변화를

18) 1999년 1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1999년 7월 1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 2조 제 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라시아연구』 제 13권 「대한민국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고찰」 240쪽에서 재인용.

19) 2015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 2조 제 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라시아연구』 제 13권 「대한민국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고찰」 240쪽에서 재인용.

겪고 그렇게 변화한 것을 반복 숙달하여 형태를 유지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다.²⁰⁾

때문에 기존의 원형개념에서 전형(典型)개념으로 전환되었다.²¹⁾ 전형이란 어떤 부류의 본질적 특색을 나타내는 틀로서 특정시기 한 형태를 규정하는 원형과는 달리 무형문화유산의 속성인 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변화의 속성이 내발적 역동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현재 팔탄지역의 민요는 그 음성과 악보들이 채보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의 효용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다. 오히려 팔탄민요가 가진 특징과 의미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그 현대적 계승을 지역민들이 직접 행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 이런 과정들은 얼마만큼 재현해냈다는 결과 및 성과주의로 접근하기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생활문화기반 무형문화재들은 민속경연대회를 통해 공연형태로 다듬어지는데 대부분 과거의 생활상을 보여주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과거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공연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과 유리되어 보기 좋게 만든 박제 같은 공연으로 그칠 수 있다.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해 지역과 밀착된 민요를 학습하고 주요한 지역문화자산을 직접 만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생활문화적 성격을 잘 살리며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그동안 지켜온 향토문화 개념에 큰 위기를 맞이한 문화원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축적 보존에 힘썼던 지역 향토문화자료들을 현대적으로 보완 적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보는 실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0) 송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소고」, 『남도민속연구』 제 17집, (남도민속학회, 2008), 223쪽.

21)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 2조 제 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2) 송준, 위의책(2008), 225쪽

4.2.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박조원류 팔탄민요의 복원방안

단절된 무형문화재를 복원하는 생활문화동아리를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실험에 가깝다. 잘 보존되어있다고 여겨지는 엘리트 국악조차 각종 지원이 없으면 대중들과 만나기 힘든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요나 제례를 위한 노래를 기반으로 한 생활 문화형 무형문화재를 아마추어들이 참여하여 복원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도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복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요소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엘리트 국악도 대중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대중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단절되었던 시대적 간극에 더하여 팔탄민요 어려운 테크닉을 가지는 <면생이>와 <긴방아소리>를 가진 대표민요로 주목받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복원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형태만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복원이 진행되게 되면 그 자생성이나 지속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생활문화 기반 민요들이 엘리트 국악인들의 수준에 비하여 예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용집단이 있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원에서 감당해야 할 더 큰 사명을 준다. 허나 알아주는 이 없어 단절되었던 문화적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지자체나 시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막연한 일회적 복원보다 지속적인 관심 아래 새롭고 신선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제안해 보는 형태는 지역학적 평생학습동아리로서 팔탄민요 보존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안한 무형문화재 복원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로서 민요를 주목한 것이다. 앞서 그것에만 집중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으나 그런 동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동기유발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현상유지에 급급한 문화보존의 사례를 넘어서서 지역친화적이고 자생성이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로서의 형태를 기획하여 제시한다면 예산지원과 같은 문제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역주민의 확보인데 팔탄면 밀양박씨 집성촌 주민을 중심으로 참여의사를 확인한 지역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준비되어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모임을 기획해 나가야할까? 본 논문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지역학적 평생학습 동아리는 지역학과 평생학습 그리고 동아리라는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지역학적 성격이다. 지역학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²³⁾ 팔탄민요를 전승하고 학습하는 것은 팔탄지역의 과거를 돌아보는 지역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연구된 채록자료와 학술자료들이 말하는 것은 팔탄민요가 작게는 팔탄면 구장리의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민요지만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민요로서의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팔탄면의 과거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배우고 전승하는 것이 화성시와 경기도를 대표하는 민요를 살려내고 이어나간다는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지역친화적인 콘텐츠 즉 지역학적인 성격을 고려해야한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의 성격이다. 법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²⁴⁾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10조에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을 장려하고 있다.²⁵⁾ 앞서 말한 교양으로서의 지역학을 주제로 평생교육 형태를 띄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문화재복원방식으로 복원을 시도한다면 그간 원형(原型) 중심의 무형문화재 지정의 문제점으로 지적

23) 전자문헌 :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자 2016년 11월 3일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749100>

24) 2014년 1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8월 30일 시행된 「평생교육법」 제 2조 제 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5) 2007년 12월 21일 개정 시행된 「교육기본법」 제 10조 제 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되어온 박제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생활문화적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복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과 한국민요에 관한 교양이 필요하다. 예술적 기능의 실현은 각자의 소질이나 타고난 성정에 의해 차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과거 생활문화를 반영하고 엿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학습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팔탄민요의 예술적 가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기수업을 실시하고 민요의 가사에서 드러나는 지역의 생활상을 중심으로 과거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한 다양한 교양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들이다. 팔탄 민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커리큘럼부터 지역의 과거사와 같은 민요를 중심으로 지역사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및 토론거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동아리적인 성격이다. 팔탄민요를 중심으로 동아리를 만들게 되면 일종의 학습동아리를 목표로 잡아야한다. 학습동아리란 말 그대로 학습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2012년 진행된 김한별과 김영옥의 연구에서 학습동아리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²⁶⁾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자율적운영의 강조와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습주제에 대한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수행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학과 평생교육은 하향식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생활문화까지 고려한 무형문화재 복원을 이야기하려면 현대 학습동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수평성이 꼭 필요하다.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와 9월 진행한 면단위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행해지던 장승제와 곁줄 줄다리기를 축제에서 진행해야하는데 장승을 공사장 비로 심는 문제와 줄다리기를 줄을 기성품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성원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포크레인으로 장승을 심고 기성품으로 제작된 줄을 사용해서 줄다리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디까지가 편의를 위해 현대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을 그대로 지켜

26) 김한별외, 「구성원관점에서 본 평생학습 동아리의 운영원리」, 『교육문제연구』 제 42집(2012), 76쪽.

내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농촌사회의 현실로 볼 때 이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마을의 권력관계에 따라 사안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당제에서 쓰이는 금기와 절차가 의미는 휘발되고 형식만 남게 되어 왜라는 질문 없이 반복되다 소멸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전통문화를 계승함에 있어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을 간소화하거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과거 형태를 박제화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전통문화의 생명력을 사라지게 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팔탄민요를 생활문화적 성격을 살려 복원하려면 과거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 전통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율적인 토론과 결정이 꼭 필요하다. 만약 지역민들의 큰 바람대로 팔탄민요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가 열리고 그것이 시와 도 단위의 주목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에서 하향식으로 기획하는 축제가 아닌 지역민이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과 지역문화유산의 지역적 특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특히 과거의 생활문화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을 직접 재현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팔탄민요의 연구를 통해 파악한 맥락들을 어떤 방식으로 현대에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요 재현을 위해 일부의 논을 과거 방식으로 경작한다거나 농요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농촌체험 캠프 등을 기획한다고 할 때 단순히 돈이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는 지역민들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학술적인 연구나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완성시킬 수 없는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논의를 통해 완성해야 할 요소들이다.

4.3. 문화원의 역할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원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문화원은 향토문화에 대한 수집과 정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기 때

문에 동아리에서 필요한 지역학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학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지역문화는 특이성과 대표성을 중심으로 조명되지만 문화원에서 생산하는 지역학술 자료의 경우 사대적으로 디테일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제작되는 향토자료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으나 과거 발행된 문화원의 향토자료는 중앙학계에서도 주목하는 숨겨진 자료들이다. 물론 과거에 작성된 자료들이 학술자료로 활용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부족함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원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추가조사를 통한 보완작업들이 이루어지면 그간 진행한 성과들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조사 작업을 진행하거나 문화교육 활동을 진행해왔던 강사와 학자 등의 인력자원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팔탄민요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화성시사>나 <경기민속지> 제작에 참여했던 학자들과 연결을 시킬수 있고 지역학 교양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강사 인프라를 시행착오 없이 연결해줄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책정된 사업예산중 동아리활동의 성격과 일치하는 항목의 예산을 활용하여 면단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학술대회나 세미나 혹은 워크샵 등을 공동으로 주최할 수가 있다. 물론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발표자나 토론자, 공간과 진행 노하우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문화동아리들에서 문화원에 가장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연습 및 학습활동을 위한 공간지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문화원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일정과 시간을 고려하여 나누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현재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지점인데 시나 문화원연합회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행정 공간 및 인력지원을 들 수 있다. 학습동아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다.²⁷⁾ 교육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거나 회의를 위한 모임을 주재할

27) 김한별외(2012), 위의 책, 84쪽.

때 또 교육의 성과물이 발표회나 공연으로 구현될 때도 모두 경제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현재 지원중인 사업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부분이 지원금 신청과 지출절차에 대한 어려움의 호소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학습동아리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동아리를 운영하는 집행부에게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이 지워져서라는 얘기도 있다. 각 문화원마다 역량은 차이가 있겠지만 공모에 지원하고 예산 신청 및 지출에 대한 노하우는 지역주민들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체가 형태를 갖추고 자생력을 키우기 전까지는 지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조금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축제가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몰린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²⁸⁾ 많은 사람들이 그 부실한 운영과 천편 일률적인 형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축제에 세금을 쓰는 것은 무작정 나쁘게만 볼일이 아니다. 항상 지역축제의 맥락 없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이제는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지역특색을 살릴만한 지역 내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근래에 들어 다양한 생활문화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문화원의 역량인 향토문화의 축적자료들을 활용하여 생활문화동아리들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5. 결론

지금까지 생활문화 동아리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과 전승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팔탄민요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문화적 속성을 가진 전통문화에 대한 복원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소수 예능인들을 위한 엘리트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인 생활문화의 발전

28) 강경록, 「[대한민국은축제중]③ 이름모를 축제에도 혈세 '평평'」, 『이데일리』, 2016년 11월 1일 기사.

은 문화수혜자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흐름의 변화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문화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도 전통문화 중 전문화된 예능인들의 엘리트문화는 아마추어들이 학습하고 교류하는 동아리형태로 생활문화화 되고 있으나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상황변화와 인력, 예산, 행정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형태 보존이 힘들 정도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보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활문화적인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박제화의 단계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성시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원사항이었던 경기도무형문화재 27-2호 화성시 팔탄면 <상여소리, 회다지소리>의 주민중심 복원방안을 생활문화동아리의 방식으로 진행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기도무형문화재 27-2호로 지정된 화성시 팔탄면의 <상여소리, 회다지소리>는 구연의 어려움 때문에 소멸된 <긴방아소리> 부분이 살아있는 경기남부의 대표적 장례요다. 하지만 선소리꾼 박조원씨가 남긴 자료를 보면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 이외에도 팔탄지역의 지명이 담겨있고 빼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보존가치가 큰 경기남부 대표민요문화재이다. 복원과정에서 지자체의 무관심과 복원 후 얻게 될 경제·명예적 이권을 위한 주변인들과의 주도권싸움,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에 많이 치우친 복원 동기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한 방법은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원참여였다.

팔탄민요를 구성하는 노동요와 장례요는 과거 생활의 필요에 따라 불렸던 생활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원형의 모습만을 박제화 하는 기존의 형식으로는 생명력있는 복원이 어렵다. 실제 무형문화재의 선정 방식도 문화재 보존기록을 그대로 재현하는 원형론(原型論)에서 맥락에 따른 다양한 변용을 용인하는 전형론(典型論)을 따르는 법으로 개정되어 2016년 3월부터 실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박조원류 팔탄민요를 복원하는 방안으로 지역학적 성격을 지닌 평생학습동아리의 형태를 제안하였다. 팔탄면 구장리의 옛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음악적으로는 경기남부의 대

표성을 가진 팔탄민요의 지역학적 측면, 민요와 전통문화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학습하는 평생교육적 성격, 자율성과 수평성, 자발성을 확보할 수 있어 현대 생활문화의 특징을 만들 수 있는 지역학적 평생학습동아리가 합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방향의 생활문화동아리가 생활문화적으로 팔탄민요를 복원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하향식으로 하달되는 문화가 아닌 참여를 통해 수평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옛 생활문화와 현재 팔탄면의 생활문화의 접점을 찾고 진정한 계승발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제화를 위해 지켜나가야 할 부분과 간소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 내 합의도 이룰 수 있어 추후 진행할 상품화 단계에서의 경제·문화적 성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문화원도 학술적 인력풀 및 축적된 향토자료, 공간 그리고 행정노하우들을 전격적으로 지원하여 그 과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자체들도 행정, 경제적 자원이 풀뿌리 문화조직인 생활문화동아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직 추진 전 구상단계의 방안을 이야기하는 단계의 논문이라 현실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 시행착오들을 좀 더 겪어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직면하면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 생활문화 적 전통문화의 복원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지역사회의 교류와 소통에 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 된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진행 하게 되면 많이 수정된 후속적인 연구 보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화성시사』,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6.
- 『경기도의 민속예술』,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7.
- 김영운 외, 『경기도의 향토민요』, 경기문화재단, 2006.
- 강등학 외, 『경기향토민요』, 경기도국악당, 2007.
- 이소라,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 제 4권,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6.

논문

- 유팔무, 「한국전쟁과 문화변동」, 『아시아문화』 16호(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 권숙인, 「소비사회와 세계체제 확산 속에서의 한국문화론」, 『비교문화연구』 4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문화다움(추미경 외), 「화성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기초연구」, 화성문화재단, 2015.
- 한동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기능적 역할 연구」, 『역사문화연구』 4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 장유정, 「20세기 전반기 〈방아타령〉 계 노래의 지속과 변모」, 『한국민요학』 30호(한국민요학회, 2010), 327쪽
- 송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소고」, 『남도민속연구』 제 17집, 남도민속학회, 2008.
- 김한별외, 「구성원관점에서 본 평생학습 동아리의 운영원리」, 『교육문제연구』 제 42집,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2.
- 송낙길, 「지방문화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제 9권 2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4.
- 이경엽, 「단절위기 공동체놀이의 전승현황과 계승 방향」, 『한국민속학』 49권, 한국민속학회, 2009.
- 류호철, 「무형문화재의 개념확장과 전통문화 보전·활용」,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회, 2016
- 임장혁,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과 기록물의 활용」,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 15권, 한국무용기록학회, 2008

임재해, 「마을 공동체문화로서 민속놀이의 전승과 기능」, 『한국민속학』 48집, 한국민속학회, 2008

전자문헌

『네이버 국어사전』, 2016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사이트』, 2016

『국가정보법령센터』 www.law.go.kr (2016)

「지방문화원진흥법」

「평생교육법」

「교육기본법」

「문화재보호법」

기사

강경록, 「[대한민국은축제중]③ 이름모를 축제에도 혈세 '평평'」, 『이데일리』, 2016년 11월 1일.

기존 강좌 중심에서 탈피한
지역생활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생활문화/ 생활문화예술 익숙한데 낯설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 하고 어딘가 많이 익숙하며, 또 고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은 단어라 참 쉽게 생각하며 일말의 고민도 없이 “우리가 이제껏 해온 일이잖아”하고 결론을 내리며 관심의 중심에서 한발 벗어나서 바라만 본 단어이다.

그 도 그럴 것이 지방문화원의 생성과 함께 시작하고 성장한 문화학교와 다양한 지방문화사업을 우리는 생활문화예술 또는 생활문화예술사업 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의 이름을 생활문화사업 이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여기저기서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경쟁하듯 다투며 꺼내들고 있다. 마치 새로운 문화예술사업의 패러다임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국민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의 모든 곳에 생활문화예술사업 확산을 위한 방안을 찾으라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단체의 생성부터 그 지역의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태풍과도 같은 생활문화예술 확산사업의 중심에서 벗어나 또다시 주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너무 익숙하면 그 가치를 모른다 했던가?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생활문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인지 또는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겐 우리 지방문화원들이 길게는 60년 동안 진행해온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문화원이 생각하는 생활문화사업과 요즘 들어 정립되어지는 생활문화사업과의 차이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지방문화원이 지향해 왔던 생활문화는 무엇이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해서 지방문화원이 처음 생각했던 생활문화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과거 문화원의 움직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그 해답을 찾아야한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있는 생활문화예술의 방향이 바로 우리 지방문화원의 과거에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삶의 모든 기술이 문화가 되던 시대가 있었다.

생활 속의 모든 이야기가 문화의 전부였던 시대는 일상에 소소한 삶의 기술이 가득했다. 우리는 뭐든지 직접 만들고, 짓고, 꾸미고, 세우는 과정을 통해 문화나 예술 또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필연적인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삶의 방식이 개인적,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편리함이 일상이 되고 삶에는 여유가 넘쳐났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트에서 사오면 되고, 수리가 필요하면 전화를 걸어 고치면 된다. 남는 것은 버리면 되고, 모자라는 것은 사면된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회 현상 속에 던져졌고, 수많은 편리함 뒤에 현실의 삶은 그만큼 고달프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그 편리함 속에 일상의 기술을 잃었으며 공동체는 사라지고 오로지 돈이 있어야 작동하는 서비스 시스템만 남았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는 삶의 기술을 잃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었으며, 소통능력은 더욱 더 낮아져 오늘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잃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날 우리는 고립되고 피폐해진 삶에서 과거의 일상

을 찾기 위해 고군분토하고 있다.

“손수” 만드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늘 함께했던 공동체가 사라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를 쓰고” 산다.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앞만 보며 살아온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만 투자하며 살았으며 그 결과 결국 남는 것은 경쟁적인 삶속에 잃어버린 삶의 기술,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는 자각이 시작되고 있다.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행복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묻고 있다.

편리함과 바쁨에 밀려난 우리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은 어디로 갔을까?

사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며, 관계 맺기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

너무도 당연하고 보편적인 질문에 2016년 우리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이모든 것이 과거의 생활이며, 문화라고...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요즘 들어 우리가 문화의 핵심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은 기존에 우리 문화원이 지키고 확산시키며 발전 시켜왔던 문화원만의 생활문화예술과는 조금 다르다 물론 원론적인 생활문화에 관한 접근은 같을 수 있겠으나 그 해답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문화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1.5 세대를 위한 0.5세대의 풀이 방식이라 말할 수 있겠다.

과거 0.5세대의 풀이방식을 적용하여 지금의 1.5세대의 생활문화를 푼다는 것은 참으로 간단한 일이다. 간단히 말해서 구성원 모두가 모여서 수다 떨고 음식을 나누며 문제를 의논하고 실천하는 ‘관심 공동체’ 또 함께 놀고, 춤추고, 노래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취향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다.

사라진 ‘관심 공동체’와 ‘취향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2016년형 생활문화운동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문화공동체가 바로 우리

지방문화원이 말하는 생활문화라 하겠다.

문화예술 = 문화 and 예술 인가? 문화 or 예술인가?

우리가 말하는 문화예술에는 혹시 예술만을 말하는 건 아닌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가 문화와 예술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기존의 기예중심의 예술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예술적 측면과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측면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문화자본이 증가하고 국가적 · 지역적 · 개인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문화적 가치관 확장 및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등의 문화적 효과, 소득증대 고용창출 국가 이미지마케팅 강화 투자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인적자본 제고 교육효과, 범죄예방 등의 사회적 효과를 가지는 등 현대사회에 있어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은 문화라는 커다란 본질에서 예술의 형태로 구체화 된 것이고, 또한 예술의 형태로 구분되어지지 못하는 또 다른 문화를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가 없어 우리는 그것이 마치 문화예술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사장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마치 문화예술분야의 범위는 제도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또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의 범위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등이 우리가 말하는 문화예술의 전부가 아닌가하는 착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방문화원의 문화 사업이 문화학교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기타 문화 사업으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생활문화 사업이 지방문화원의 사

업과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말이다.

생활문화예술의 특성

문화정책의 흐름이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문예술중심에서 시민 생활예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때 문화예술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소수전문가들만의 것이었던 예술이 최근에는 예술의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형태로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연결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 교육이 대중화되고 문화자본이 민주화되면서 창작자와 감상자의 관계였던 전문예술가와 시민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문화예술 공동체를 형성해오고 있다.

생활문화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예술 지상주의적인 예술이나 경제 발전이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파악하는 도구적 예술과는 차별화된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공동체적 예술이다.

지금의 생활문화예술은 동호회의 형태를 가지며 문화예술동호회는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취미를 가진 문화공동체 성격의 동호회로 정의되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을 확대하고 개인의 호기심을 중심으로 문화행위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를 촉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공동체지향성을 가진다.

문화예술이 내면의 성장을 지향하였다면 생활문화예술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인 자아실현의 충족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란 ‘지역’과 ‘문화’의 합성어이다.

우선 ‘지역’이란 어떤 공통적 또는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졌거나, 혹은 광범위한 지역 활동의 흐름으로 묶인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은 내부적 결집력(internal cohesion)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의 지역이 사라지기도 한다.

한편 ‘문화예술’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 이루어 놓은 행동양식, 지식, 가치,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등을 포함한 하나의 사회생활양식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은 한 사회나 집단을 특정 짓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인 동시에 삶의 방식 및 물질적 소산물 전반, 즉 관습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이란 공통적인 요소로 연계된 일정한 공간의 생활양식 전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 즉 지역의 전통문화, 지역민의 생활문화, 미래의 창조문화 등을 포괄한다. 한편 지역이 외부 지역과 구분되듯이 지역문화예술 역시 지역적 독자성과 개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예술은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특징짓는 관습의 덩어리인 것이다. 즉 흔히 지역문화예술이라 하면 지역의 예술 활동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역문화예술은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의 전체로 보아야 한다.

지역의 생활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확장해가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야하고 그에 맞는 지원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생활문화예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생활문화예술 확

산을 위한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해외의 생활문화

1. 일본의 사례

일본총무성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생활기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지역민들이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황은 2011년 기준 10세이상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6.4%로 이중 스포츠 문화예술학술 관련 자원봉사 비율은 3.5%이고, 스포츠 문화예술학술 자원봉사자들은 연간 29일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관련 사례로 세타가야 미술관 도쿄의 특별구인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지역민들이 문화자원봉사자 감상리더가 되어 학생대상 안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학생 5명, 8명 정도의 리더가 되어 연간 50~60회 정도 개최되는 감상교실 및 박물관 투어에 안내 역할을 맡아 일방적인 작품의 해설보다는 미술관에 흥미를 느끼고 친숙하게 하는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한가니시 문화창조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문화자원봉사단체인 'ala 크루즈'는 회원의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 나아가 시민의 문화·예술의 창조에 기여라는 목적하에 지역주민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조직이 신규문화시설과 연계한 경우이다.

세 번째 사례로 NPO 법인인 '토비우메노카이'는 문화와 예술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더욱 많은 시민이 문화와 예술과 만나서 어울리게 하는 것이 조직구성의 목적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모두 포괄하는 주민들의 문화예술공동체형성이 되고 있다. (조현성 2012).

2. 영국의 사례

영국의 경우 'voluntary and amateur arts group'가 있다.

이는 자기계발 네트워킹 또는 여가활동으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그 단체 구성원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예술그룹을 지칭한다. 영국

인의 예술참여중20% 정도는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영국 내 약49,140개의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있어 1년간 약710,000 번의 공연 및 전시를 개최하고 약159백만명이 관람했으며 1회 공연 및 전시마다 220명이 관람한다.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Arts Council England, 2008).

3. 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2010년 기준 자원봉사 참여율은 26.3%, 1인당 참여 시간은 33.9시간으로 문화자원봉사 참여율9.9% 참여율을 보였다. 문화자원봉사자의 수는 1,970,442명 2009년 기준으로 문화향유 수준이 높은 사람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공연예술감상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2.7배 높고 클래식 및 재즈라디오 청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2.2배 높았으며 독서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2.6배 높게 참여율이 나타났다.(American for the Arts, 2010).

미국의 연구에서 문화향유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4. 기타 사례

그 밖에 네덜란드에서는 2000년 한조사에서 36%의 국민이 하나 이상의 아마추어 예술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 1985년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마추어 예술과 관련하여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캐나다의 2000년여론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78%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원의 문화학교와 지역의 문화센터 비교

[의정부문화원 문화학교 운영현황]

구분		구분	강좌명
전통	경기민요장구	악기	클래식기타
	서도민요장구		어쿠스틱기타 (통기타)
	남도민요장구		오카리나
	가야금병창		첼로 레슨1
	난타		첼로 앙상블1
	한국무용		첼로 레슨2
	사물놀이	기타 일반	디지털사진
	규방공예		요가
	전통생활자수		서양화
	한글서예		수채화
	한문서예		인물소묘
	문인화		펜화
	한국화		벨리댄스경력자
	채색민화	아동	청소년예인챔버오케스트라
	닥종이인형		초등미술
	캘리그래피와 수제도장		표현미술

[의정부예술의전당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현황]

구분	강좌명	구분	강좌명
음악	음악아 놀자	미술	직장인을 위한 미술
	꿈꾸는 아리아리랑		놀이미술
	사물놀이		과학실험실의 화가
	즐거운 성악		화가와 떠나는 영화여행
	함께해요 가야금		화가와 떠나는 영화여행
	관악합주	연극	나도 무대의 주인공!
	즐거운 첼로		칙칙폭폭 신나는연극놀이
	바이올린을 즐겁게	무용	굿거리 소고춤
	해금		한량무
	함께하는 피아노		꿈꾸는 발레
	직장인을 위한 성악		동초수건춤
			태평무

[의정부 동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운영현황]

구분	강좌명	구분	강좌명
아동, 청소년	음악줄넘기 A(초등)	성인	국 학 기 공
	신나는 방송댄스(초등)		노 래 교 실
	뮤지컬잉글리쉬		벨리댄스
	청소년 기타교실		나이아가라 치매예방
	쿠킹 아트(6~7세)		문인화
	키즈 미술(7세~초등)		중국어 회화(초급)
	역사야 놀자(2~4학년)		중국어 회화(중급)
성인	경기 민요		생활영어
	생활영어(저녁반)		캘리그래피
	컴퓨터(기초)		커피문화교실
	블로그, 동영상		필라테스 요가(A)
	컴퓨터 (엑셀*파워포인트)		필라테스 요가(B)
	컴퓨터 (한글 2010)		천연화장품.비누
	컴퓨터 (엑셀)		홈 패션
	우 크 렐 레		팬 화
	사물놀이(A)		가요명곡과 팝송
	사물놀이(초급반)		일어 회화
	클래식기타교실(초급)		한문서예
	홈 베이커리		생활댄스
	탁구교실(초급)		스포츠댄스
	요 가(A)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 강좌]

구분	강좌명	구분	강좌명
아동	이야기가 있는 숲	공예, 예술	사랑스러운 Basic아기옷
	북아트로 만나는 역사		감성 손뜨개
	창의 팡팡 ! 꼬매아트!!		두뇌건강 보드게임
	이야기가 있는 독서교실		아트 페인팅
	놀이로배우는 창의수학		다육공예 DIY
	영어문법이랑 놀자		생활 속 아로마테라피
	요리쿡조리쿡역사사회		우리엄마는 파티플래너
	두근두근 과학아 놀자		재활용공예
	자연에서 놀아요		동양매듭 전통악세사리
	동화나라 여행		창의육감놀이
	엄마표 오감 미술놀이		토탈 플라워 아트
	스토리텔링 놀이수학	어학, 인문학, 자격증	글로벌회화교실
	창의영재 보드게임		학부모아카데미 초등
공예, 예술	한지공예		학부모아카데미 중등
	아트애즈 테라피		4050 은퇴를 은퇴하라
	패션&페이스페인팅		건강耳침
	우드버닝(전기인두화)		비전리더쉽캠프
	손뜨개교실		두뇌건강 FUN FUN
	냅킨소품공예		약초관리사 자격증 과정
	생활소품 DIY		청소년 바리스타교실
	나무공예 DIY		多 맛난 요리교실
	포크아트 &툴페인팅		우리집 토론리더 전문가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동화여행
	토탈플라워아트		알뜰하게 꿀피부만들기
	톡 톡 톡! 아트		웃음치료
	교육마술배우기		4050 미래인생설계
	그림책과함께 스피치수업		역사북아트 전문가 양성
			일본어 배우기

생활문화사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예술이란 장르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지방문화원의 문화학교와 유사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하는 기관들의 프로그램과 비교해볼 때 예술교육은 매우 유사한 수준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교육에는 문화원보다 오히려 타 기관이 더욱 다양한 접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시민중심으로 생활문화를 변화하려는 노력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는 면만을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지방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지방문화원이 생활문화 사업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히 이야기하자면 지방문화원이 말하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인한 전통문화사업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생활문화 사업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사업 역시 단순 강의식 교육사업에 집중되어있는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은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정확한 명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지방문화원은 다시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고 찾아야한다. 지방문화원만의 생활문화사업을 아니 정확히 지방문화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생활문화 사업을 또 지방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생활문화사업을...

의정부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

요즘 들어 의정부문화원은 이야기라는 단어에 목말라있다.

모든 문화사업의 시작을 이야기라는 단어에서 찾으려한다.

어르신들의 이야기, 주부의 이야기, 청소년들의 이야기, 남편들의 이야기, 자식들의 이야기, 선생님들의 이야기, 학생들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공간의 이야기, 예술작품이야기, 음식이야기 등등 무수히 많은 ○○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문화원의 앞으로의 사업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어색하고 어렵고 경험도 없지만 이것이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공통의 요소이며 또 미래를 찾아가는 생활문화의 사업의 열쇠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문화원은 재미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문화원도 재미있고, 시민들도 재미있고, 일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수혜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재미있는 그런 사업 우린 그 키워드를 소소한 이야기에서 찾는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만나러 갑니다. 한마음 실버밴드』

한마음 실버밴드 사업은 어르신들의 과거의 꿈에 대한 이야기다.

단순히 악기를 가르치고 노래를 배우는 그런 밴드육성 사업이 아니다. 젊은 시절 미8군 밴드의 공연을 보며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서고 싶다고 꿈꾸던 젊은 청년이 이제 백발이 되어 그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 평생 택시를 몰아 홀로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할머니의 유일한 취미인 운전하며 노래 부르기 언제고 기회가 된다면 택시 밖의 멋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 한명 한명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실버밴드 만들기 사업이다.

이제 그렇게 각자가 꾸었던 꿈이 모두의 노력으로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망막하기만 하던 어르신 밴드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가득 담고 여기 저기 노인정과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다닌다. 희망과 사랑을 가득 담은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서...



현재 한마음실버밴드를 위해 의정부문화원은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젠 어르신들이 우리 문화원을 돕고 있다. 홍보도 하고, 또 다른 후배 뮤지션을 양성하고, 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에 앞장서고 우리 의정부문화원에는 자랑스런 한마음 실버밴드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르신 닥종이인형반 탄생』

어르신 닥종이인형반은 인형이 가지고 있는 환상 그리고 친밀함에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또는 추억이 좋은 재료가 되어 만들어진 또 하나의 생활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응답하라 1960』 이다 1960년대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지금의 어르신들의 기억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우리는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 살아가며 어떠한 추억을 또 어떠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강의실에 가득하다

사실 의정부문화원에는 닥종이인형 강좌가 있었다. 이미 그 역사가 20년 가까이 된 우리문화원의 대표 문화강좌였다. 하지만 수강생이 점점 줄어들어 2015년 폐강의 위기에 처했고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꼭 지키고 싶은 강좌였고 의미있는 강좌였기 때문이다 그 고민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우리는 원인을 생각했고 또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너무도 당연한 곳에 있었다. 앞에서도 수차례 이야기

했던 문화예술교육에 치중된 즉 기술과 결과에 치중한 지금의 문화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구성원들간의 이야기가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생활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어르신 닥종이인형반은 대기자가 많아 고민이 되는 우수한 강좌가 되었다.

올 8월 우리는 닥종이인형반 『응답하라 1960』 프로젝트의 첫 전시가 진행되었다. 너무도 많은 호응과 부러움에 참가자들의 자존감은 높아만 갔고 여기저기에서 전시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이야기 공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작업이 끝나면 이들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 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닥종이 인형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예쁜 옷을 입혀 새로운 장르로 변화를 할 것이다. 아직은 그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도전이 의정부문화원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이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은 문화원, 문화의집,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활동중인 예술가들과 생활문화예술 관련 인적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교육활동을 진흥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일상의 문화를 발견하고 나누고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예술가와 단체의 역량을 활용해 생활문화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대상 생활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경기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생활문화예술 사업이다.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은 기존의 우리문화원이 진행해왔던 생활문화 교육 사업과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그 지역의 문화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생활문화가 되고 생활예술이 되어 가는지 고민하고 있다. 또 이러한 지역의 생활문화예술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문화원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매개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 있다.

2016년 10월 29일 남양주문화원을 시작으로 11월 20일 의정부문화원까지 15개의 다양한 기관이 생각하는 생활문화예술 사업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축제가 진행된다.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플랫폼 축제기획단은 이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 남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 독특한 살림 노하우를 가진 사람, 술을 잘 빚는 사람 등등 다양한 이웃들이 있다.

그러한 개성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 어느새 마을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생활문화다. 따라서 생활문화는 강좌 수강이나 관람 위주의 소위 ‘문화생활’과 구별된다.

기능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다. 그렇기에 문화예술 활동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의 변화부터 시작하여 주민들의 역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마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번 생활문화플랫폼 축제에는
그러한 과정들이 녹아 있다.

주민들이 서로의 능력과 공동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마
울의 특성을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생활문화’라면 그 때 주민들은 문화
생산자, 즉 생활문화디자이너가 된
다.

그리고 생활문화디자이너들을 모
아내어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도
록 엮어내는 장소가 바로 ‘생활문화
플랫폼’이다.』



구분	지역/단체	행사명
문화원	이천문화원	내 생애 첫 술잔
	의정부문화원	백 명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선물단
	시흥문화원	2016함께하는 생활문화
	수원문화원	어서와~생활문화는 처음이지
	남양주문화원	지구마을공작소
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광명생활문화디자이너 축제 _ 광명생활문화 「PICK ME UP!」
	남양주 진접문화의집	우리동네 하더라 셰프 축제
	성남서현문화의집	성남 생활문화 네트워크 축제
	화성봉담문화의집	상기2리 마을 이야기 사진잔치
기타	광명-세상의 모든 나무	게릴라목공
	고양-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수작가무
	안성-문화예술놀이터 우리	미생(美生)살롱의 생활문화 포틀럭 파티
	안산 신나는문화학교	고잔마술스토리,
	경기지부 A-TEEN 문화공간 쉼표	고(告)고(GO) 파티
	양평산중협동조합	강상 산중마을 문화나눔 축제
	파주이야기 가게	파주 이야기잔치

[생활문화플랫폼 축제 참가 단체 및 프로그램]

의정부문화원이 진행하는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소소한 문화 나눔의 기쁨』 프로젝트 『백개의 이야기 백개의 선물』



의정부문화원의 생활문화플랫폼 참가 사업인 『소문나기』 프로젝트는 45개의 문화학교 강좌와 1,000여명의 회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의정부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생활문화예술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다.

처음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 지원하며 그간에 지속 되었던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과 별다른 것 없을 거라는 부담 없는

생각은 첫 번째 워크숍에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생활문화예술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화에 예술교육의 옷을 입히는 작업』 이었다.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해준 김영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첫째 문화원에서 활동하던 생활문화 강사 및 동아리들이 지역의 문화적 이슈를 만들고 생활문화 활동의 제 2단계를 실천해야하며

둘째로 생활문화 실천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이슈들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삶에 다가가기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 의정부 지역의 문화 활동의 네트워크와 허브의 역할을 문화원이 찾아가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쉽게만 생각했던 이번 사업이 엄청난 부담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는 미처 몰랐다.

소문나기(소소한 문화 나눔의 기쁨) 프로젝트
[백 개의 이야기, 백 개의 선물]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Only you

당신만을, 오직 당신을 위해

● 사업제목 : 소문나기(소소한 문화 나눔의 기쁨) 프로젝트
『백 개의 이야기, 백 개의 선물』

● 사업기간 : 2016년 8월 ~ 11월
● 사업내용 : 특별한 대상에게 의미있는 선물을 주고 싶은 시민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와 어울리는 소중한 선물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의정부문화원의 생활문화예술 감사 및 회원들이 참여하여 의미있는 선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기간 : 2016년 8월 26일 까지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내외(참가비 무료)
● 프로그램 예시

선물 종류	이야기 사연 (예시)
서양화	부인에게 그려주는 초상화
문인화/한국화/서예	아들에게 만들어주는 부채
규방공예	자녀/손주와 첫 취업을 축하하는 명함케이스
수제도장	자녀/손주에게 만들어주는 첫 인감도장
사진	첫 손주의 백일/돌 사진 앨범
악기연주	남편에게 들려주는 첼로/기타/오카리나 연주

● 문 의 : 의정부문화원 사무국 전화 031-872-5678 / 이메일 ujbcc@hanmail.net

소소한 문화 나눔의 기쁨 프로젝트

특별한 대상에게 의미있는 선물을 주고 싶은 시민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와 어울리는 소중한 선물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의정부문화원의 생활문화예술 감사 및 회원들이 참여하여 의미있는 선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물종류

구분	선물 종류	선물 내용
서양화	팝아트	그리고 싶은 대상의 얼굴을 모던한 느낌으로 만화처럼 그린 그림
한국화	도자 페인팅	조별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구워내는 나만의 도자기세트
서예	부채, 미니 족자	부채나 족자에 좋은 글귀나 시, 먼지걸 등을 적어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
수제도장	수제도장	선물받을 대상의 이름, 호, 좋아하는 단어를 새겨 만드는 수제도장 세트
규방공예	열쇠고리, 안경집, 브로치, 북주머니	한 뼘 한 뼘 정성들여 자수를 놓고, 천들을 엮어 만드는 생활소품
악기연주	오카리나	작 들려주고 싶은 노래 한 곡을 연습하여 들려주는 특별한 연주 선물
	기타	
	첼로	

『백 개의 이야기 백 개의 선물』 사업은 우리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던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선물이란 도구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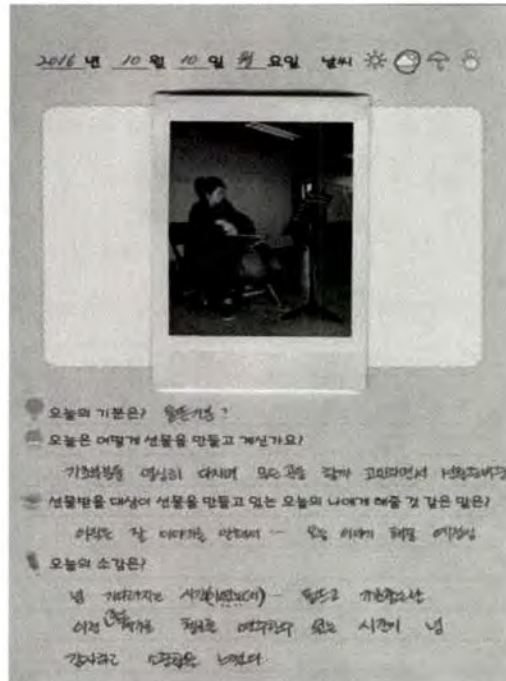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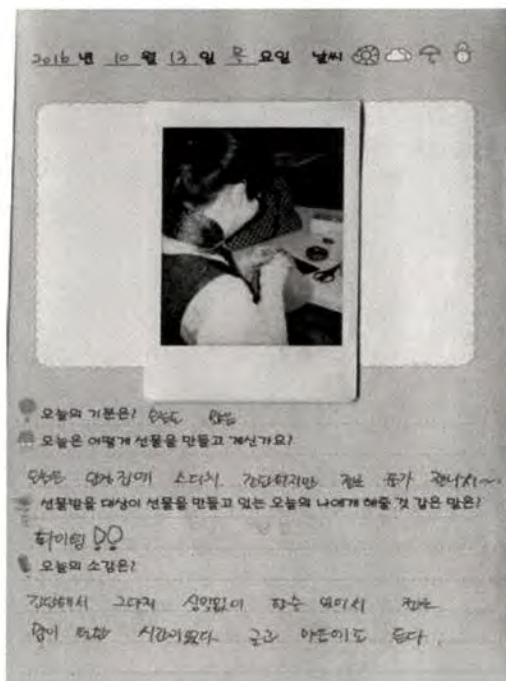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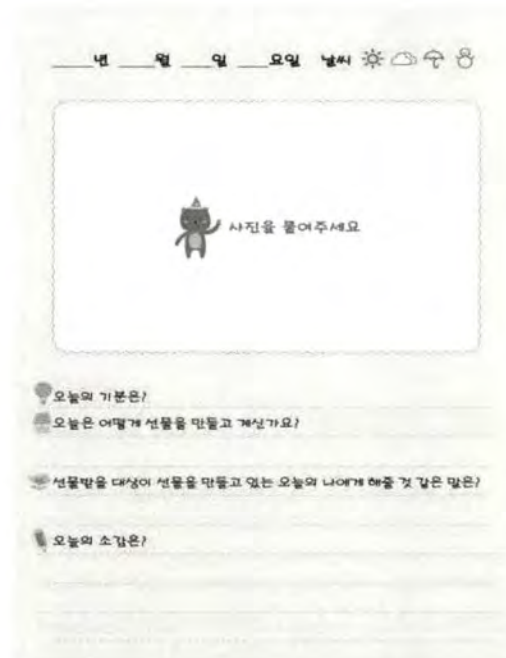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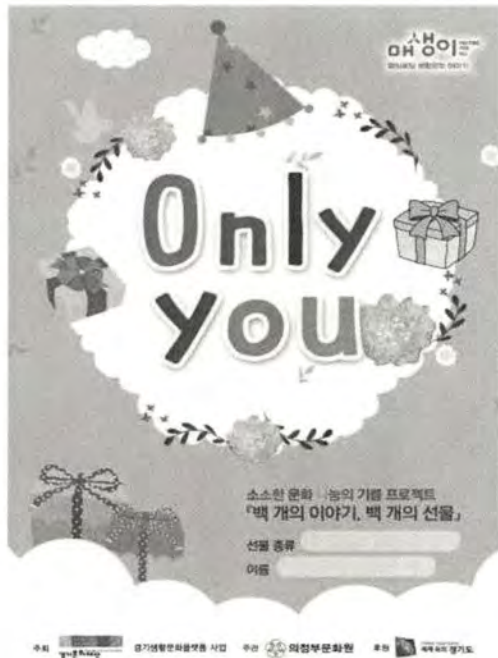
먼저 시민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선물을 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연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처음 공고를 내고 홍보를 시작하였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우리의 사업을 이해하고 동참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걱정과는 반대로 기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참가 의사와 함께 다양한 사연을 보내왔다. 물론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환상이 그들의 시선을 잡은 것이라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시작된 우리의 소문나기 프로젝트는 컨설턴트 김영현 선생님의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득담은 그러나 참 쉬운 설명회를 통해서 점점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100명의 생활문화선물단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매일 써가는 선물노트]

100개의 선물을 만들어가는 100명의 선물단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의 열정이 단연 최고다.

그동안 문화원에서 진행해온 문화예술 강좌에 참가하는 분들도 열정이 가득했지만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은 좀 특별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통해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런지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울이 또 공감해가는 문화공동체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

아직은 어설피고 또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 의정부문화원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활문화예술 사업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다음이 더욱 기대되는 작업이었다.

2016년 11월 20일 오후3시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 『백 명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선물단』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는 100명의 선물단과 100명의 선물을 받을 대상자들이 같은 자리를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지해주며 그동안 준비한 선물을 감상하며 하나가 되는 문화공동체 문화가족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지역생활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첫째 문화에 예술의 옷을 입히자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의 보고이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구성원이 살아오면서 집약되어진 지역의 문화 이야기가 있다.

지식, 가치,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등을 포함한 하나의 사회생활양식 전체를 정리하고 발굴해내서 그에 맞는 표현 방법을 예술이라는 친근한 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이 정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민요의 기법을 배우는게 아니라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노래로 만들어 내고 부르면서 지역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활예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 강좌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자.

문화원과 유사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기관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차별성을 잃어 버린지 오래이다. 문화원은 시민들의 삶에 녹아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왜 악기를 배우고, 왜 춤을 배우고, 노래, 서예, 그림 등등을 배우려고 하는지 또 그들이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작 그들이 문화원의 생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형태의 생활문화예술 사업을 찾아야한다. 획일화 되고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동네만의 재료를 찾자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어디에 가셔도 찾을수 있거나 배울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있다.

서예, 무용, 미술, 음악, 댄스, 하모니카, 기타, 오카리나 등등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강의는 없다. 예를 들어 이천문화원의 내생의 첫 술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의정부의 예로 부대찌개와 연결되는 음식이야기, 천상병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음악, 미술, 무용 등의 프로그램 등 수 많은 소재를 활용해야한다.

넷째 이웃의 강사를 찾아가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전문가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왔던 문화예술 전문 강사 뿐만 아니라 김치전문가, 자전거수리전문가, 액자전문가, 악기수리전문가, 블로그 및 SNS전문가, 물고기 키우기 전문가, 애견전문가, 가정용 화초 전문가, 살림전문가, 육아전문가 등등 무수히 많은 생활속 달인들이 존재한다. 이젠 그들의 이야기와 노하우 등이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생활문화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지

금까지 문화원이 키워온 노하우와 만나 경쟁력 있는 생활문화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Ⅲ.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현황분석 및 담론형성을 위한

심포지움

토론

좌장 전고필 문화기획자

토론 김장환 용인문화원사무국장
 이동준 이천문화원사무국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031-239-1020

본 자료집은 2016년 경기도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